

글로벌
한인경제를
잇다,
대한민국을
세계로
펼치다

支
會
史

제1장 • 북미

제2장 • 대양주

제3장 • 서유럽

제4장 • 동유럽 • CIS

제5장 • 중동 • 아프리카

제6장 • 중남미

제7장 • 동남아시아

제8장 • 서남아시아

제9장 • 중국

제10장 • 일본

세계한인무역협회 지회 역사



북미



01 캐나다 · 캘거리,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 / 02 미국 · 애틀랜타, 보스턴, 시카고, 컬럼비아, 댈러스, 덴버, 디트로이트,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마이애미, 뉴저지, 뉴욕, 노퍽, 랠리,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시애틀, 탬파, 워싱턴D.C.

01

캐나다 CANADA



캘거리지회 Calgary

캘거리는 캐나다 태평양철도의 개통으로 동서 교통로의 요충지가 되면서 지역의 상업 중심지로 성장했다. 주변 농목업 지대를 기반으로 농축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 뒤 유전이 개발돼 석유·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시멘트·정유 등 각종 공업도 활발하다. 캘거리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집중돼 있다.

캘거리지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월드옥타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7년 4월 20일 설립됐다. 초기 약 15명의 회원을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향후 100명 규모의 단체로 성장하면서 국내 무역의 풍성한 꽃을 피우는 거목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월드옥타의 사업들을 하나씩 진행해나가고 있으며, 통합 차세대무역스쿨에 캘거리주 교민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참석자에게 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캘거리는 캐나다의 여러 주 중에서도 국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캘거리주가 한국과의 무역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월드옥타와 협력하여 캘거리지회 회원에게는 한국기업과의 연결을 지원하며,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품성이 높은 제품을 현지에 소개해주고 있다.

몬트리올지회 Montreal

몬트리올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몬트리올의 산업구조는 캐나다 IT산업의 50% 가량이 이곳에 모여 있을 만큼 첨단산업과 지식산업 중심의 지식집약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외에 관광산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몬트리올에서 한국 기업의 무역활동은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몬트리올지회는 2016년 3월 14일 초대 김민식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 됐다. 캐나다에서는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월드옥타 지회가 이전부터 활동해왔다. 몬트리올에서도 한인 무역인들을 중심으로 지회 설립 논의가 있었으나 실행에는 이르지 못하다가 2016년에야 지회가 설립됐다. 몬트리올지회는 총 16명의 정회원이 활동 중이며, 회원들의 사업분야는 언론·부동산·외식업·유학·교육사업·부동산·건축·디자인·육선·태권도장·화훼도매 등 다양하다.

몬트리올지회는 설립 후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회장단 및 회원들이 참석하는 등 월드옥타 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인 경제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회설립일

2014년 4월 20일



역대 지회장

제1대 홍건식 제2대 김강민



지회설립일

2016년 3월 14일



역대 지회장

제1대 김민식



몬트리올은 종합대학 4개가 위치한 북미 최대의 교육도시로서, 이러한 특성을 살려 몬트리올 지회도 차세대교육과 글로벌 인재양성에 특화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설립 첫해부터 밴쿠버에서 개최된 통합 차세대무역스쿨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차세대 육성을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매년 차세대무역스쿨에 참가해 짧은 연혁에도 20여 명의 차세대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2018년에는 대륙별 지회장단을 초청해 지회 간 회원교류와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 각종 분과 및 소모임 등을 통해 월드옥타인으로서 유대를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총회를 통해 현지 교민 사회에 협회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한인회를 비롯한 커뮤니티 행사에 월드옥타 이름으로 참여해 신규회원 모집에 앞장서고 있다. 정기적인 사회봉사활동과 한국 문화 전파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몬트리올지회는 현지 한인경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몬트리올 상공회의소에 가입했으며, 향후 모국 중소기업의 안내자로서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현지 경영자총회를 비롯한 관련 경제단체에 가입을 준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다양한 기업들과 자매결연을 통해 모국상품을 알리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 | |
|------------|-------------|
| 제1-12대 이영현 | 제13-14대 김관수 |
| 제15대 강찬식 | 제16대 최창욱 |
| 제17대 안상현 | 제18대 박동령 |
| 제19대 박성원 | 제20-21대 김효선 |

토론토지회 Toronto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 도시이며 북미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요충지이다. 세계적인 무역·금융·기술·ICT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민 구조는 외국 기업들의 진입마켓으로 최적화돼 있다. 우리나라도 캐나다 교민의 절반 가량이 토론토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최대 동포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토론토지회는 월드옥타가 탄생한 해인 1981년 초대 이영현 지회장에 의해 출범해 현재까지 월드옥타와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설립 이후 매년 분기별 회원 모임과 매월 정기적인 네트워크 및 세미나를 통해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1981년의 설립 멤버였던 이영현 지회장은 월드옥타의 제12대 회장(2002~2004년)을 역임하기도 했다.

토론토지회는 매년 열리는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와 수출상담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한인 리더들의 발굴과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차세대무역스쿨을 단독으로 개최해왔고, 2017년 캐나다 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개최에 이어, 2019년에는 캐나다 동부 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차세대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토론토지회는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은 물론 수출상담회를 수행하는 등 모국 수출 지원에 월드옥타와 행보를 함께하면서 중소기업의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편 토론토지회는 2015년 캐나다 연방정부에 비영리단체로 공식등록하며 지회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초석을 만들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정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서 경제·문화·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모국과 캐나다 간 민간외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밴쿠버지회 Vancouver

밴쿠버는 캐나다 제3의 도시이다. 밴쿠버에서 한국상품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품질 면에서 인지도와 경쟁력을 이미 갖췄으며 소자본 규모의 사업 진출 전망이 밝다. 밴쿠버는 세계에서 살기좋은 도시 순위에서 매년 상위로 꼽히면서 이주민들이 많으며, 특히 캐나다에서 한국·중국·동남아 등 아시아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밴쿠버지회는 1995년 초대 신양준 지회장을 필두로, 토론토에 이어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설립됐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와 앨버타·사스카툰 등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제인들의 모임으로,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사업정보 교환은 물론 캐나다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밴쿠버지회는 차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세대와 기성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팀워크를 바탕으로 캐나다 제3의 도시인 밴쿠버를 실질적인 무역업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장으로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2005년 밴쿠버 최초의 제1회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이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제1회 차세대무역스쿨 수료생 리유니언 행사를 개최해 그동안 배출된 무역스쿨 수료생을 한 데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2011년부터 한인 CEO와 차세대 간 만남의 자리인 'Meet The CEO', 차세대무역스쿨 이전 설명회 'Info Session', 차세대 육성 기금 마련 행사인 '한인 자선골프대회' 등과 같은 다양한 차세대 관련 행사들을 개최했다. 2015년에는 '제1회 Future CEO Network(FCN)'을 개최하여 한인 차세대들에게 사업가 정신을 고취했다. FCN은 젊은 한인 기업인들의 소통 및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로 차세대무역스쿨과 더불어 밴쿠버지회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 차세대무역스쿨은 캐나다 전체가 참여해 월드옥타 20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통합 차세대무역스쿨로 개최하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회설립일
1995년



역대 지회장

- 제1대 신양준 제2대 박재덕
- 제3대 서병길 제4대 김영일
- 제5대 박철웅 제6대 최창식
- 제7대 송병수 제8대 류동하
- 제9-10대 최오용 제11대 정용중
- 제12대 황선양



지회설립일
1989년 3월 20일



역대 지회장

- 제1대 임창빈 제2대 박효은
- 제3대 심중구 제4대 박효은
- 제5대 오유제 제6대 남기만
- 제7대 박중오 제8대 박형권

02

미국 U.S.A.



애틀랜타지회 Atlanta

애틀랜타는 미국 남동부 최대 상공업의 중심지로 CNN과 코카콜라 등의 본사가 이곳에 있다. 1996년 하계올림픽 개최 후 한인들로부터 주목받으며 교민 수가 10만 명에 이르게 됐다. 동포 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애틀랜타지회는 1989년 3월 20일 창립총회를 통해 초대 임창빈 지회장을 선출한 이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등 월드옥타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에 적극 참석하며 회원들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즈니스 연결을 뒷받침했다. 애틀랜타지회가 치른 다양한 행사 중 2010년 노크로스에서 열린 월드옥타 미주 경제인대회는 한·미 FTA 비준 촉구대회를 겸하며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한·미FTA가 조기 비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애틀랜타지회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들의 시장 개척을 돕고 지역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애틀랜타지회는 월드옥타의 네트워킹을 활용해 차세대무역스쿨을 실시하며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지닌 현지 지도자와 현지 시민권자인 차세대의 전문지식과 탁월한 지도력이 합쳐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무역 증진과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틀랜타지회의 차세대 양성에 힘입어 초기 40여 명이던 회원이 현재는 10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이다.

보스톤지회 Boston

보스톤은 미국의 도시 중 설립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정신적 뿌리 같은 곳이다. 미국 북동부의 상업·금융 중심지일 뿐 아니라, 하버드대학이 창설된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섬유·정밀기계·조선·화학공업 등의 공업도시로도 입지를 다지고 있다.

보스톤지회는 보스톤 지역을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동포 사업가들의 발전을 위해 2013년 9월 설립됐고, 2018년에는 매사추세츠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법인으로서 정식등록했다. 초대 안병학 지회장은 보스톤지회의 설립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보스톤 지역 한인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동포사회에서 신망이 높다. 2018년 취임하여 지금까지 보스톤지회를 이끌고 있는 제2대 장진섭 지회장은 교육기관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을 창업한 경영자이자 교육자이다. 비영리단체(Educational Divide Reform) 대표이면서 주립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의 연구교수로 탈북대학생 글로벌 기업가 양성교육, 보스톤 지역 저소득 이민가정 학생 특별교육 등을 통해 한국 및 미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보스톤지회는 월드옥타의 주요사업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2018년 이후 매월 옥타비즈 포럼을 개최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소개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사업성장을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한인 경제인들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미국정부기관 및 타민족 경제공동체들과의 교류를 확대해나가면서 발전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13년 9월



역대 지회장

제1대 안병학 제2대 장진섭

특히 보스톤지회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보스톤 지역의 첨단산업 기술 및 사업환경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음 3가지를 역점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첫째, 건설한 사업가들을 회원으로 참여시켜 저변을 넓히고 보스톤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회원사들의 사업 성장을 지원한다. 둘째, 한인동포 2세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해 성공적인 동포 기업가들이 많아 지도록 조직적으로 노력한다. 셋째, 월드옥타 회원들과 한국기업들의 보스톤 진출을 지원해 지회 회원들과 상생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2020년 보스톤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선에서 위협받는 경찰관들을 위해 마스크 및 세정제를 보스톤 경찰청에 기부했고, 지역 TV방송에서 이를 취재하기도 했다. 또한 보스톤 지역에서 가장 저소득층이고 감염율이 높은 브락튼시(市)를 방문하여 방역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미국사회에서 한인 경제인들의 역할과 기여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시카고지회 Chicago

시카고는 미국에서 뉴욕, LA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5대호의 하나인 미시간호와 미시시피강 유역을 끼고 있는 국제적인 물류 집산지이며, 금융·텔레커뮤니케이션·자동차·기계산업·곡물거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굴지의 산업 도시이다.

시카고지회는 1984년 12월 초대 이영호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1999년에는 제4회 세계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현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한인 경제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했고, 2000년대 이후 수차례 차세대무역스쿨을 진행하면서 월드옥타 차세대 인재육성에도 힘썼다. 시카고지회는 회원들의 참여에 힘입어 한때 200여 명 규모의 지회로 성장



지회설립일

1984년 12월 20일



역대 지회장

- 제1대 이영호 제2대 고창근
- 제3대 홍순완 제4-5대 김재희
- 제6대 강호근 제7대 최선명
- 제8대 이근우 제9대 홍세홍
- 제10대 이원제 제11대 손영일
- 제12대 박준 제13대 이재근
- 제14대 리병근 제15대 문병대
- 제16대 김문식 제17대 이재근
- 제18대 김문식 제19대 홍순용(스티브홍)



했으나, 최근 세대교체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현재 50여 명의 정회원이 활동 중이다. 지회 회원들은 기계·식품·전기·중장비·전자·잡화·화장품·유통·물류 등의 사업에 종사하며 현지 한인들의 경제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월드옥타의 조직에 발맞춰 통상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총회 및 각종 세미나를 통해 사업 관련 정보나 미국시장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시카고무역관과 협업 및 지역단치단체 행사에 월드옥타 이름으로 참여하여 현지 교민사회에 월드옥타를 알리며 지역 경제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분과 및 소모임 등을 통해 월드옥타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유대를 다지고 있으며, 통합 차세대무역스쿨에 차세대를 파견하는 등 인재양성에도 힘써 시카고지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컬럼비아지회 Columbia

컬럼비아는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도로, 1920년대 고속도로망이 구축되면서 교통 요지로 발전했다. 미국 남동부에서 가장 큰 농산물시장이 소재하며·화학·전자·금속·식품·섬유공업 등을 기반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무역을 이끌고 있다. 교육기관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을 비롯해 그리스도교대학, 미주리대학교 컬럼비아 캠퍼스, 스티븐스대학 등이 있고, 우드로 윌슨박물관, 컬럼비아미술관 등이 소재한 교육·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컬럼비아지회는 2016년 9월 1일 초대 이상열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이상열 지회장은 2006년부터 South Carolina Beauty 협회장을 5년간 역임하며 회원들의 권익 신장에 힘썼고, 한인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사회 한인들 간의 단합에 기여해왔다. 컬럼비아지회는 현재 지회장이 공석이지만,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한인들의 사업 다각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16년 9월 1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이상열 / 현재 공석

댈러스지회 Dallas

댈러스는 텍사스주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텍사스 국경 무역지대는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도 활용된다. 댈러스는 전통적으로 농기구·축산물의 거래가 활발하고, 천연가스·연료유를 생산하는 석유개발의 거점으로 유전용 기계 등 석유산업이 발달했다. 항공기·자동차·식품가공·섬유 등도 대표적인 산업이며, IT 및 통신 관련 기업들이 텍사스주에 포진해 있다. 최근에는 스테이트 팜·도요타·페덱스·리버티 뮤추얼 등 대기업들이 자리 잡으며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 댈러스지회 회원은 주로 부동산 투자개발, 호텔, 무역, 금융, 보험

지회설립일
1991년

역대 지회장
제1대 고광진 제2대 이정우
제3대 정진광 제4대 김갑정
제5대 강민구 제6대 이용우
제7대 이윤구 제8대 진이스미스
제9대 백남선



세관, 도·소매업, 부티 서플라이 등에 종사하고 있다.

댈러스지회가 출범한 것은 1991년으로, 텍사스 메트로폴리탄인 달라스와 포스워스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모여 첫 결성됐다. 제1대 고광진 지회장으로부터 제9대 백남선 지회장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댈러스지회는 현재 160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댈러스지회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월드옥타를 알리며, 회원들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구미시·북미 무역사절단 미팅(2009년), 부천시·북미 무역사절단 미팅(2010년), 경남 고성군 무역사절단 미팅(2010년)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무역사절단 미팅, 투자설명회 등을 주관하는 등 모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댈러스 지역의 한글학교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덴버지회 Denver

콜로라도주의 주도인 덴버는 워싱턴DC. 다음으로 행정부처가 많은 행정 도시이다. IT분야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력산업이며, 이밖에 녹색 에너지·우주·건강식품 및 외식 프랜차이즈·의류 및 스포츠 패션산업 등도 활발하다. 덴버는 아름다운 산들이 주위에 펼쳐져 있어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미국에서 각종 컨벤션이 많이 열리는 도시이기도 하다. 덴버 지역에는 한인 약 3만 5,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많으며, IT산업과 국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동포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지회설립일
2013년 4월 5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오금석 제2~4대 최윤성
제5대 최준경

덴버지회는 초대 오금석 지회장을 필두로 2013년 4월 5일 설립돼, 현재 총 51명의 차세대회원
과 23명의 정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소수의 회원에다 짧은 역사임에도 덴버 월드트레이드센
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세미나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한·미 양국 간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촉매 역할을 수행하는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회이다.

2016년 3월에는 덴버 월드트레이드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성남시 중소기업 대표자 및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 시내 7개 중소기업으로 시장개척단을 구성하고 수출상담을 진행한 결과, 미국 현지
바이어를 상대로 하루 만에 1,340만 달러(약 154억 6,500만 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덴버지회는 미래경제 주역이 될 차세대 발굴 육성에 역점을 두면서 2014년 제1기 차세대
무역스쿨 개최를 시작으로, 무역과 창업을 꿈꾸는 차세대 경제인을 매년 배출하고 있다. 2015
년 월드옥타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월드옥타 라이징스타 프로젝트’에서는 덴버·LA 연합팀이
영예의 1등을 차지해 200만 달러가 넘는 투자의향서를 받았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페퍼다인
대학에서 열린 북미 서부통합 무역스쿨 글로벌창업 경진대회에서 덴버지회의 차세대가 팀장
으로 활약한 조가1등을 수상하는 등 차세대의 활약이 눈부시다.



디트로이트지회 Detroit

디트로이트는 미시간주 최대 도시로서, 5대호 연안 중공업지대를 중심으로 공업 도시를 이루
었다. 또한 5대호의 심장부에 위치하는 항구 도시로 미국에서 손꼽히는 무역항이기도 하다.

디트로이트지회는 이러한 산업적 특징을 활용해 모국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과 판로 개척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 초대 홍석우 지회장과 총 회원 15명을 필두로 설
립됐다. 홍석우 지회장은 2001년 디트로이트 주재원으로 파견돼 200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을 시작했고, 이후 200여 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성장시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월드옥타 네
트워크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20년 12월 10일

역대 지회장
제1대 홍석우

이제 막 신설된 디트로이트지회는 향후 활동으로 무역·식음료·생활잡화·이커머스·회계·금융·
출판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회원들과 함께 조직의 안정화를 이룬 후, 지역사회에서
월드옥타의 이름과 위상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휴스턴지회 Houston

휴스턴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허브도시로서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오일원유자원이 풍부한 곳
이다. 또한 인근에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있을 뿐 아니라, 인류 최초의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를 비롯한 우주선의 관제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휴스턴지회는 2005년 최초로 설립됐다가 2020년 7월 22일 양철선 지회장을 필두로 재창립됐
다. 양철선 지회장은 지역 유력주간지 코리아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인으로, 휴스턴에서는
유일하게 세계한인언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휴스턴지회는 이민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동포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커뮤니티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데 사명감을 갖고 있다. 회원들은 주로 출판·에너지설비·통신·IT·전자상거래·
의료기기·교육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재출범 후 지회 초기 활동으로 K-Culture를 주류사회에
알리며 월드옥타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지회 L.A.

로스앤젤레스(LA)는 뉴욕과 더불어 미국을 대표하는 최대 도시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
인타운이 형성되었다. 로스앤젤레스지회의 역사는 월드옥타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다. 1981년
월드옥타의 첫 사무국이 이곳에서 시작되며 로스앤젤레스지회가 개설됐다. 월드옥타 초대 회
장인 장우상 회장 역시 로스앤젤레스 출신이며, 로스앤젤레스지회는 회원 354명으로 구성된
미국 최대 한인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1년 제6차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현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2008년 1월 제1차 한·미 FTA 비준 촉진 세미나 및 미주지역활성화대회, 2009년 9월 한·미
FTA 비준 촉구 및 미주활성화대회, 2016년 7월 미주경제인대회 등을 개최했고, 2019년 라스
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제2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또한 2004년부터 매년 무역인 양성을 위한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하면서 현지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4년에는 여성창업무역스쿨을 처음으로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외에 글로벌 마케터들의 해외지사화사업, 수출친구맺기사업, 수출바우처사업 등을 통해서
모국기업의 수출 판로개척과 무역 증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05년 최초 설립
2020년 7월 22일 재창립

역대 지회장
제1대 양철선

지회설립일
1981년

역대 지회장

- 제1대 고석화 제2대 임종철
- 제3대 임광식 제4-5대 정진철
- 제6대 옥병광 제7대 이덕치
- 제8-9대 이청길 제10대 박병철
- 제11-12대 은석찬 제13대 이영중
- 제14대 민병철 제15대 서정일
- 제16대 김준경 제17-18대 김주연
- 제19대 민병호 제20대 임정숙
- 제21-22대 김무호 제23대 최영석



자체사업으로는 매년 언론사 방문 신년 인터뷰를 시작으로 경제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믹서’(매월), 한인 무역인 양성을 위한 ‘무역아카데미’(매년 9월), 최신 정보 업데이트를 위한 경제·무역 등의 ‘세미나’ 개최(분기별), 국내 청년인력 취업 활성화를 위한 ‘모국청년 채용사업’과 해외취업자들의 빠른 현지 적응을 위한 ‘멘토링’ 지원 등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매년 12월 5일 개최되는 ‘무역의 날’은 지역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사 등을 초대하여 회원들과 함께 지역 한인 경제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국의 경제성장을 돕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상 수출상담’, ‘모국 수출 프로젝트’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의 기회를 모색했고, ‘모국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회원사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모국청년 채용 월드 옥타 취업사업을 적극 홍보했다.

라스베이거스지회 Las Vegas

라스베이거스는 입지적으로 고립된 특성 때문에 원자력위원회의 폭격·핵폭발실험장, 넬리공군기지 등이 세워지면서 방위산업이 도시경제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는 연중무휴의 사막휴양지로서 연간 약 4,200만 명의 관광객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한인은 약 1만 명 정도이며, 이들 중 호텔과 관광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라스베이거스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컨벤션 및 전시회가 이곳에서 시작돼 컨벤션산업의



지회설립일
2019년 8월 15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서현교

메카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 컨벤션산업의 중심지에 월드옥타 지회가 신설되면서 한인 경제인 또는 국내 중소기업이 전시회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라스베이거스지회는 2019년 8월 15일 초대 서현교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그리고 같은 해 제2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네바다주 최대 도시인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라스베이거스지회는 광고·금융·회계·부동산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마이애미지회 Miami

마이애미는 플로리다반도 남동부에 있는 항구 도시이자 관광·상공업 도시로 유명하다. 금융·상업·대중매체·연예계·예술의 중심지이며 국제 은행들이 모여 있는 곳이자 많은 글로벌 기업의 본부들이 본거지를 둔 국제무역의 중심지이다. 마이애미는 미국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미국 남부 무역의 교두보이기도 하다. 이곳을 통해 엄청난 양의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자랑한다.

마이애미지회는 2019년 4월 15일 스티브서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으며, 한인 경제인들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면서 한인들의 주류 사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되어주고 있다. 마이애미지회는 다양한 세미나를 열어 차세대들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매진하고 있으며 현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스티브서 지회장은 변호사로서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경영자로서 현재 운영 중인 수출입회사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뉴저지지회 New Jersey

미국의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뉴저지는 뉴욕·펜실베이니아·코네티컷 주와 이웃하며 미국 동부 상업의 중심지로서, 대서양의 동쪽 연안으로 운송되는 해운항만 물류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뉴저지지회는 1988년 뉴저지 경제인연합회로 출발했다. 1992년 뉴저지 주립대학인 럿거스대학교에 한국어학과를 설치하는 모금운동에 앞장섰고, 이후 설치된 한국어학과는 현재까지도 지역사회에서 한국어 교육과 한인 2세 지도자 배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초창기에는 뉴저지 테니스협회와 청소년 축구단을 창립해서 지역의 한인사회 스포츠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다.



지회설립일
2019년 4월 15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스티브서



지회설립일
1988년 최초 설립
2021년 3월 15일 재창립



역대 지회장
제1대 손호균



2001년 월드옥타 뉴저지회로 승인됐고, 2014년에는 월드옥타 북미주경제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2015년에는 Korean-American Young Leadership Forum을 개최해 창의적인 청년 한인 리더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고, 2017년부터 뉴저지 차세대 무역스쿨을 단독으로 개최해 21세기 한인 2세들의 리더십 함양에 힘쓰고 있다.

2020년 뉴저지회회는 혼란기를 겪으며 승인이 취소됐으나, 2021년 재창립되면서 뉴저지 OKTA로 재탄생했다. 월드옥타의 모범지회로 거듭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인 차세대 육성, 21세기 한인 리더십 함양, 한국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뉴욕지회 New York

미국 동부 지역에 위치한 뉴욕은 상업·금융·무역의 중심도시로서, 도심인 맨해튼에는 월가(街)가 있으며 미국의 경제수도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대학과 연구소·박물관·영화관 등이 모여 있는 문화도시이기도 하며 브로드웨이가 소재한다.

뉴욕지회(뉴욕한인경제인협회)는 1978년 뉴욕의 맨해튼 중부 32가 브로드웨이(현 K TOWN) 지역에서 ‘브로드웨이 상인번영회’로 출발했다. 이후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1991년에는 월드옥타 뉴욕지회로 승인됐다.

뉴욕지회가 상업·금융·무역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한인 상권을 활성화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펼친 결과, 1994년에는 로버트 줄리아니 뉴욕시장의 서명을 받아 뉴욕 32가를 코리안 웨이(Korea Way)로 명명하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와 같은 모습의 뉴욕 코리안타운이 만들어졌다. 이런 공로로 1996년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해외 한인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기도 했다.

뉴욕지회는 1997년 제2차 세계한인무역인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당시 위기에 직면한 모국경제의 회복을 지원했다. 2003년에는 월드옥타 최초의 차세대무역스쿨을 뉴욕에서 시작



- | | |
|----------|----------|
| 제1대 김영철 | 제2대 김혁규 |
| 제3대 최희용 | 제4대 김재설 |
| 제5대 정수일 | 제6대 김동빈 |
| 제7대 유득중 | 제8대 조병차 |
| 제9대 이종철 | 제10대 윤수균 |
| 제11대 윤호현 | 제12대 김선남 |
| 제13대 이형로 | 제14대 조병태 |
| 제15대 구영범 | 제16대 변원수 |
| 제17대 이영규 | 제18대 이상만 |
| 제19대 서진형 | 제20대 민경완 |
| 제21대 정해묵 | 제22대 김제만 |
| 제23대 신상호 | 제24대 임필재 |
| 제25대 조준홍 | 제26대 전병관 |
| 제27대 정재건 | 제28대 민승기 |
| 제29대 강병목 | 제30대 권영현 |
| 제31대 허순범 | 제32대 김권수 |
| 제33대 유대현 | 제34대 홍대수 |



- | | |
|---------|---------|
| 제1대 최현중 | 제2대 정대의 |
| 제3대 탁성국 | |



했고, 현재까지 1,000여 명의 차세대 경제인을 육성하면서 선배 무역인들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월드옥타에서 실시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 취업 지원사업 등에 지회 회원들이 활발히 참여하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한국우수상품 전시장을 개장하여 상시 한국의 우수상품을 전시, 판매 및 시장조사할 수 있는 쇼케이스를 운영 중이다. 여기서 파악되는 시장조사 반응에 따라 글로벌 마케터 등 다양한 월드옥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지회 자체 행사로는 매년 장학기금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그 수익금으로 30년 넘게 운영 중인 협회 부설 맨하탄 한국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매해 연말에는 경제인의 밤 행사를 통해 월드옥타 회원들은 물론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2019년에는 뉴욕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2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성대히 개최됐다.

뉴욕지회는 그동안 초대 김영철 지회장을 시작으로 2021년 제34대 홍대수 지회장까지 총 34명의 지회장이 선출됐으며, 제9대 조병태 회장, 제13대 서진형 회장, 현 제20대 하용회 회장 등 월드옥타 회장을 총 3명이나 배출했다. 뉴욕지회는 현재 160여 명의 회원이 있는, 가장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퍽지회 Norfolk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노퍽은 뉴포트뉴스·포츠머스과 더불어 1920년대 광역항만을 이루었다. 제1·2차 세계대전 중 동맹국에 물자와 군수품을 반출하며 항만 기능을 확장했고, 이후 수출입

의 중심지로 성장하며 시가지가 크게 확대됐다. 2000년대 들어 포츠머스 국제터미널이 준공되며 노퍽항의 물동량이 제1위 항만인 뉴욕항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곳의 뛰어난 무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인 경제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회 설립이 추진됐다.

노퍽지회는 2006년 6월 햄프턴로드 지역 한인 경제인들을 위한 단체로 출범했다. 9개 도시로 이루어진 햄프턴로드는 지역명이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노퍽이란 명칭으로 많이 쓰여 지회 이름이 '노퍽지회'로 정해졌다. 초대 지회장은 노퍽지회의 설립을 주도한 최현중 지회장이 선임됐다. 설립 후 노퍽지회는 지역의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자동차·수산물가공·비료·기계 등의 각종 공업이 발달한 노퍽에서 한인들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월드옥타의 행사에 참여하여 네트워크 확장과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랄리지회 Raleigh

랄리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주도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정치·경제활동이 이곳에 집중돼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등 9개의 대학이 있는 교육 도시이기도 하다. 농축산물의 거래가 활발하며 섬유·제재·전자 기기 등의 공업이 발달했다.

랄리지회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현지 진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인 경제인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4년 4월 2일 초대 강병국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강병국 지회장은 그동안 NC상공회의소 이사, 한글학교 이사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다. 랄리지회 출범 후에는 미국시장에서 한인 경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모국의 수출 증진에 일조하기 위한 다양한 월드옥타 사업들을 수행했다. 2019년부터 랄리지회를 이끌고 있는 제2대 이희옥 지회장은 트라이앵글 한국학교 이사장, 랄리 지역 한인회 수석부회장, 랄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한민족 대표 등을 역임하며 미국 주류사회의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14년 4월 2일

 **역대 지회장**
제1대 강병국 제2대 이희옥

 **지회설립일**
2020년 11월 6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윤경아

샌디에고지회 San Diego

샌디에고는 미국 내 여덟 번째로 큰 도시이다. 태평양 연안을 따라 펼쳐진 해변, 쾌적한 기후, 좋은 생활환경 등으로 은퇴한 백인들이 즐겨찾는 휴양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주요산업은 무선 통신·생명공학·조선업·방위산업·관광산업·금융과 서비스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샌디에고지회는 2020년 11월 6일 신설됐고, 이로써 월드옥타의 미주 지역 네트워크는 18개 지회로 늘어났다. 10명의 회원으로 막 첫발을 내디딘 신생 지회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지회 차원의 사업은 수행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끝나는 대로 월드옥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온·오프마켓을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샌디에고지회는 상대적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돼있지 않은 탓에 회원 수가 많지 않지만, 회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 특성상 회원들은 IT와 BIO 관련 산업 종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미국 서부 LA와 멕시코 사이에 위치한 입지적인 특성과 더불어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이루어진 회원들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펼치며 월드옥타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지회 S.F.

샌프란시스코(SF)는 미국 서부의 정치·경제·문화·교육의 중심지이며, 인접한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IT산업 활성화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인 상권도 꾸준히 확대돼 한인 수가 늘고 한인들의 경제력도 커졌다.

샌프란시스코지회는 1992년 12월 5일 초대 김효완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이후 지금까지 많은 지회장들의 헌신과 공헌을 통해 현재 지회장1인, 수석부회장 1인, 고문 2인, 부회장 2인을 두고 총 51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100여 명의 차세대회원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 지회장인 유창수 지회장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공회·한인회 등 다른 기관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회원교류에 힘써 지회의 내실을 구축했다.

 **지회설립일**
1992년 12월 5일

 **역대 지회장**
제1-2대 김효완 제3대 현승재
제4대 황정식 제5대 이애나
제6대 황정식 제7대 이종훈
제8대 김효수 제9-10대 유창수



주요사업으로는 2005년부터 매년 차세대무역스쿨 해외현지교육을 진행하여 많은 예비청년 무역인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서부 통합 차세대무역스쿨을 성황리에 개최해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어 2019년 제21차 세계대표자대회에서도 우수지회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KOTRA와 연계해 무역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교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모국의 중소기업을 현지에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

자체 행사로는 매년 연말 유관기관 관계자·언론인 등을 초청해 무역에 대한 관심과 회원 간 선의의 경쟁을 독려하는 한인 무역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지회 송년모임·총회 및 기타 친목 행사 등도 개최하고 있다.

시애틀지회 Seattle

시애틀은 미국 북서부 최대의 도시이면서, 아시아와 알래스카에 이르는 최단거리에 위치해 이들 지역으로의 진출입을 위한 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다. 항공산업 선도기업인 보잉, 세계 1위 IT기업 아마존, 세계 최대 컴퓨터 소프트웨어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적인 유통업체 코스트코, 세계 1위 커피체인점 스타벅스, 세계 최고의 여행 관련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익스피디아그룹, 미국 최고급 백화점 노드스트롬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시애틀지회는 2005년 3월 초대 도정숙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설립 후에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지회 운영에 힘쓰는 한편, 회원들 간 긴밀한 정보 교환을 위해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강화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 마련을 위해 친선 골프대회를 열어 3,000달러 정도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차세대무역스쿨에 역점을 두고 차세대 무역인 양성에 주력했다. 1년에 8회 이상 교육 세미나를 실시하는 한편, 'Sharing Information:미주한인 경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후 활동이 없어 폐쇄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2018년 11월 기존

지회설립일
2005년 3월 최초 설립
2008년 11월 재창립

역대 지회장
제1대 도정숙 제2대 박재영

지회설립일
2011년 4월 15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장익군 제2대 신소영



회원과 새로운 회원을 취합해 지회를 재창립했다.

시애틀지회 제2대 지회장으로 취임한 박재영 지회장은 중점사업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사화사업을 진행 중이며, 글로벌 취업 지원사업과 차세대 양성을 위한 사업을 동시에 전개해나가고 있다. 특히 시애틀은 밀레니엄 세대의 거주 비율이 미국 전체 평균보다 높아 향후 시애틀지회도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관련 사업의 비중을 더욱 높여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탬파지회 Tampa

탬파는 남부 플로리다주 제3의 대도시이다. 여러 개의 다리와 수로로 연결되는 세인트피터즈버그와 클리어워터 등이 인근 위성도시로 있고, 이러한 위성도시와 교외를 합쳐 탬파만(탬파베이)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탬파는 멕시코만과 만나는 항만도시이기도 해서, 주요사업도 힐즈버러강 어귀와 면한 탬파만을 중심으로 선적과 제조업이 발달했다. 이외에 통조림·비료·화학·알루미늄공업이 활발하다.

탬파지회는 2011년 4월 15일 초대 장익군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이후 월드옥타 행사 참석을 통해 지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교민활동을 함께하면서 한인 경제인들이 사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장의 원동력이 돼주고 있다.

2021년 신소영 지회장이 연임하게 되면서, 침체됐던 조직을 활성화하고 차세대회원들과 멘토링 관계를 구축해 지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탬파지회는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모국 경제 살리기에 더욱 주력하며, 비중 있는 경제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PGA 박람회쇼 개최 및 지원사업, 차세대 무역인 육성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미국 주류사회 진출에 역점을 두고 동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워싱턴D.C.지회 Washington D.C.

워싱턴DC는 미국의 수도로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이곳에 집중돼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대사관을 비롯해 세계 213개국의 대사관이 모여 있는 행정 중심 도시이기도 하다. 워싱턴DC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업종은 잡화소매업·세탁업·식당업 등 소규모의 자영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무역업·금융업·특수기술 등 전문분야가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워싱턴DC지회는 초대 김의근 지회장을 필두로 1998년 조직됐다. 현재 저스틴정 지회장을 중심으로 20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여러 임원진들이 지회 발전에 힘쓰고 있다.

워싱턴DC지회는 월드옥타에서 개최하는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등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회원들과 지방자치단체 간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에는 미주 한인경제대회를 주최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2005년부터 해외 현지 차세대무역스쿨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4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활발한 지회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미동부 통합 차세대 창업무역스쿨에 참가하며 차세대 회원을 배출하고 있다.

자체 행사로는 T.G.I.(Time to Get Inspired)라는 타이틀로 2018년부터 매년 지역사회 한인 무역인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있으며, 2019년부터 OHH(OKTA Happy Hour) 네트워킹 행사를 갖고 있다.



지회설립일
1998년



역대 지회장

- | | |
|-----------|-------------|
| 제1대 김의근 | 제2대 오충렬 |
| 제3대 박종호 | 제4대 김봉일 |
| 제5대 김옥태 | 제6대 민승기 |
| 제7대 최민한 | 제8대 박제순 |
| 제9대 김병철 | 제10-11대 박플라 |
| 제12대 저스틴정 | |



대양주



01 오스트레일리아 • 아들레이드, 브리즈번, 멜버른, 퍼스, 시드니, 태스매니아 / 02 뉴질랜드 •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01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아들레이드지회 Adelaide

호주의 동서남북을 이어주는 교통의 연결점인 아들레이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철광 개발로 근대공업이 발달했으며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덕분에 밀·과일·양모의 집산지였다.

아들레이드지회는 2005년 4월 26일 설립해 회원 간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 발전을 거듭했다. 특히 초대 정경옥 지회장은 충청남도과 남호주의 자매결연을 성사시키는 등 한·호 관계와 교민사회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차세대 무역인 양성에 힘써 온 지회는 2005년, 2006년에 개최한 차세대무역스쿨을 통해 각각 5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이후 매년 호주 각 지회에서 열리는 통합차세대무역스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지회는 회원들의 단합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신규회원 발굴, 지역경제 발전의 기여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아들레이드지회는 월드옥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에서 한인 무역인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매진할 것이다.



브리즈번지회 Brisbane

호주 제3의 도시로 일컬어지는 브리즈번은 사탕수수·밀·낙농품의 집산지이자 양모·쇠고기·설탕 등 농축산물의 선적항으로서 유명한 도시이다.

브리즈번지회는 초대 이문환 지회장의 주도 아래 2010년 3월 28일 설립됐다. 같은 해 8월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해 월드옥타의 인지도를 높였고, 교민사회를 대상으로 월드옥타 선호도를 증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무역 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 기여'라는 월드옥타 본연의 가치를 지향하며 차세대 육성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회의 전략적 발전방향으로 삼아 역량을 쏟았다. 그 결과 명실공히 브리즈번 교민들을 대표하는 제1의 경제인단체



지회설립일

2005년 4월 26일



역대 지회장

제1~3대 정경옥 제4~5대 정광수
제6대 현태석 제7대 김정기
제8대 민기호 제9대 곽동욱



지회설립일

2010년 3월 28일



역대 지회장

제1~2대 이문환 제3대 홍승모
제4~5대 박원석 제6대 정상국



지회설립일

2006년 4월



역대 지회장

제1~2대 김성학 제3대 이상열
제4대 최유근 제5대 김진만
제6대 이상열 제7대 민재홍
제8대 강진규



로 성장했다. 특히 '브리즈번 무역스쿨 및 BSP 통합 무역스쿨'은 차세대들을 지역사회의 리더로 육성하는 디아스포라 정책을 상시체제로 운영하여 월드옥타를 대표하는 해외현지 무역스쿨로 찬사를 받고 있으며, '도전, 그리고 변화하는 즐거움'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브리즈번 지회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됐다. 그리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상시운영하고 호주 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를 격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으며, 브리즈번시(市) 주최 Multicultural Business Forum에 공식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민들을 위한 로컬 비즈니스 세미나도 연 3회 개최하고 있다.

현재 브리즈번지회는 총 31명의 정회원이 활동 중이며 100여 명의 차세대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양주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회로 성장하고 있다.

멜버른지회 Melbourne

호주 남동부에 자리한 멜버른은 호주 문화의 중심지로서 대략 2만여 명의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

멜버른지회는 2006년 4월 KOTRA 멜버른 무역관에서 발기인 7인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초대 김성학 지회장을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멜버른지회는 설립 초기부터 차세대무역스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장을 도모했다. 설립 1개월 만에 2명의 차세대를 선발하여 모국방문교육에 참여시켰고, 3개월 후에는 지회사업으로서 '제1회 멜버른 OTKA 지회 차세대무역스쿨'을 험스글랜 대학에서 개최했다. 150여 명의 한인 동포들



이 참가 신청을 했고, 90여 명의 교육수료자를 배출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후 지회는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등 매년 월드옥타 행사에 참석해 회원들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즈니스를 활발히 이어나갔고, 2010년 3월에는 지회 주관으로 개최한 제1회 대양주 활성화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현재 멜버른지회는 현지에서 CEO로 활동하고 있는 35명의 정회원이 있으며, 회원들은 지회 송년모임과 총회를 통해 지회 활성화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하며 한인 무역인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다.

특히 멜버른 한인회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소수의 한인 기업인을 위한 지회가 아닌 유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교민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단체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인 무역인 및 무역 거래에 관심 있는 차세대들을 양성해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매진할 계획이다.

퍼스지회 Perth

서부 호주의 주도 퍼스는 호주 내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삼성·LG 등 한국 기업의 시장진출이 본격화된 곳이다.

퍼스지회는 2005년 2월에 설립돼 현재 40명의 정회원과 차세대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초창기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정보교류, 모국의 무역 증진을 위한 한민족 경제공동체 활동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특히 2006년, 2008년 그리고 2014년 차세대무역스쿨을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에 인지도를 높이며 현지 교민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후쿠오카·나고야 등 타 지회와의 자매결연으로 월드옥타 회원 간 폭넓은 교류 형성의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2009년에는 지사화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증대에 이바지한 공로로 우수 지회에 선정됐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지회설립일**
2005년 2월

 **역대 지회장**

- 제1대 최규조 제2-3대 임석일
- 제4대 배영길 제5대 왕성호
- 제6대 김원호 제7대 박진홍
- 제8-10대 박근서 제11대 김원호

 **지회설립일**
1990년 10월 27일

 **역대 지회장**

- 제1대 윌리엄배 제2대 김승
- 제3대 신중섭 제4대 장익재
- 제5대 강태승 제6대 엄주인, 이병기
- 제7대 임혜숙 제8대 노현상
- 제9대 임의석



사태로 인한 온·오프라인 소통합 차세대무역스쿨 개최로 유기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퍼스지회는 경제인들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현지 교민 사업체의 발전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축적된 자원을 기반으로 더 많은 참여와 노력으로 내실을 다지고, 호주 및 대양주의 한인 경제단체·타민족 및 지역 경제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시드니지회 Sydney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로 유명한 시드니는 1980년대 이민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해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는 매년 1,400여 명 규모의 이민자들이 시드니에 정착했다.

시드니지회는 대양주 최초의 지회로서 1990년 10월 27일 호주해외한인무역협회 대양주지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됐고, 이후 2005년 3월 월드옥타 시드니지회 정관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지회명으로 변경됐다.

수출상담회, 차세대무역스쿨 등을 개최하며 성장한 시드니지회는 2011년 3월 한·호 FTA 체결 촉진대회 및 대양주경제인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최근 10년간 가파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시드니지회는 현재 제9대 임의석 지회장과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단단하고 견실한 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드니지회는 차세대와 정회원의 회원층이 모두 두터워 균형 있는 연령군을 보유한 지회이며, 체계적인 GBC 교육체계 및 TP 프로젝트 등을 통해 로열티가 높고 책임감 있는 회원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견실한 재정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시드니 교민단체 가운데 가장 건전한 재정상태와 효율적인 업무관리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지회는 협회의 인적·물리적 자원을 활용해 자기 발전을 하고 협회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를 하는 회원상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회원들과 함께 지회 활성화와 회원의 권익, 협회 발전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향후 시드니지회는 교민경제 발전, 조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는 회원들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공동물류사업을 추진해 더 많은 회원들이 월드옥타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수출상담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거듭하며, 모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회원들을 위한 공동 마케팅과 공동 세일즈를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지난 30여 년간 모국과 교민의 발전을 꾀하며 성장해온 시드니지회는 향후 또 다른 30년 새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 위해 전 회원이 똘똘 뭉쳐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

태스매니아지회 Tasmania

태스매니아는 호주 본토의 빅토리아주와 배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태스매니아 섬과 퍼너 제도, 킹 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스매니아지회는 2015년 2월 17일 설립돼 2020년 11월 기준 차세대 포함 총 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기타 해외 지역 간의 무역 및 통상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 간 정보교류와 공동사업 등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의 힘겨운 상황에서도 호주 남부 차세대무역스쿨에 참여했고, 그동안 차세대무역스쿨을 통해 한인 청년 12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회는 이러한 성과를

지회설립일
2015년 2월 17일

역대 지회장
제1-2대 박찬원 제3대 김군준



바탕으로 기성세대의 경험과 젊은 혈기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회원과 차세대 간 교류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태스매니아지회는 월드옥타 내 인적 네트워크의 실용성을 강화하고 대양주를 넘어 세계가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02

뉴질랜드 NEW ZEALAND

오클랜드지회 Auckland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경제·상업의 중심지이자 전체인구의 1/3이 거주하는 최대 도시이다.

오클랜드지회의 설립 논의는 1992년 한국인의 이민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민자들 가운데 무역에 종사하는 수가 적어 독립적인 설립 여건은 마련되지 못했고, 대신 호주 월드옥타의 지부 형식으로 출발했다. KOTRA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39개의 동포 무역업체가 뜻을 모아 1995년 8월 15일, 오클랜드지회를 출범시켰다. 초대 임원진으로 지회장 박종만, 부회장 이형수 등이 선출됐다.

초창기 오클랜드지회는 동포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무역세미나'를 개최해 좋은 평을 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1997년 '무역스쿨' 과정을 개설해 1999년까지 수료생 180여 명 배출 등



큰 성과를 거뒀다. 2004년부터는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설해 해마다 1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10명의 핵심 차세대 스태프들이 왕성한 경제활동과 함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11월에는 크라이스트처치지회와 함께하는 소규모 지회 활성화대회를 개최해 회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화상미팅을 통해 친선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오클랜드지회는 제14대 이나연 지회장을 포함 50여 명의 정회원과 30여 명의 차세대회원이 활동 중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역동적인 월드옥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크라이스트처치지회 Christchurch

뉴질랜드 남(南)섬에 위치한 크라이스트처치는 관광과 목축의 중심 도시이며, 이곳에 자리한 크라이스트처치지회는 2005년 8월 15일, 37명의 정회원과 내외빈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지회장으로 부임한 이연수 지회장은 2009년까지 역임하며 지회의 탄탄한 근간을 마련했다.

지회는 2006년부터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해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신규회원 모집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각종 분과 및 소모임을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현지 한인회 봉사 및 ‘극지해양미래포럼’ 등을 통해 월드옥타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다.

 **지회설립일**
2005년 8월 15일

 **역대 지회장**

- 제1대 이연수 제2대 장동주
- 제3대 이연수 제4대 최세호
- 제5대 손헬렌



특히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총기사건 등 재난이 벌어졌을 때 지회는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상연락망 개설, 소수 민족 협회와의 간담회 등을 마련해 교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이바지했다. 그리고 지회 회원들은 한인 경제기반 구축과 동시에 정기적인 사회봉사활동, 한국문화 전파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크라이스트처치지회는 제5대 손헬렌 지회장과 함께 교민단체들과의 대외협력 도모 및 차세대와의 공동 비즈니스 창업 등을 통해 지회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모국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KOTRA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서유럽



01 오스트리아·비엔나 / 02 벨기에·브뤼셀 / 03 덴마크·코펜하겐 / 04 핀란드·헬싱키 / 05 프랑스·파리 / 06 독일·베를린,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 07 이탈리아·밀라노 / 08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09 노르웨이·오슬로 / 10 스페인·바르셀로나, 마드리드 / 11 스웨덴·스톡홀름 / 12 스위스·취리히 / 13 영국·런던, 옥스퍼드

01

오스트리아 AUSTRIA



비엔나지회 Wien

비엔나는 르네상스 이후 황금기를 맞이했고 20세기 들어서는 유럽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라는 명예를 얻었다. 비엔나는 21세기에도 증권거래소·은행 등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로 붐비는 유럽의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로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융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제1의 공업도시이기도 한 비엔나는 전국 공장수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산업의 집중률이 높다. 업종별로는 식품·화학·전기기계를 비롯하여 섬유·피혁·금속·요업 등이 많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산업을 이끌고 있다. 또한 알프스산맥이 동서로 국토를 길게 관통하고 있어서 관광산업도 활발하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간 교역은 세계 경기 둔화세와 맞물려 양국 간 수출입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비엔나지회는 2008년 6월 20일 초대 임창노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돼 2대 김종민 지회장으로 이어지며 지회활동의 보폭을 한걸음씩 넓혀나가고 있다.

 지회설립일
2008년 6월 20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임창노 제2대 김종민



02

벨기에 BELGIUM



브뤼셀지회 Brussels

브뤼셀은 과거 한적한 도시였으나 교외에 있던 18개의 자치시를 병합해 대도시권을 이루었다. 제1·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도시가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후 1958년 원자력의 이용을 주제로 한 전후 최초의 국제박람회가 개최되고 해마다 많은 국제회의가 이곳에서 열리며 재건에 성공했다. 브뤼셀에는 유럽연합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가 있어 서유럽의 수도로서의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과 벨기에는 1901년 수교 이후 우호협력 관계를

 지회설립일
1993년 최초 설립
2005년 12월 재창립

 역대 지회장
제1대 이종춘 제2대 임은희
현재 공석

발전시켜왔으며,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민간분야까지 교류가 더욱 확산될 경우 양국 간 실질적 교역액 증대와 괄목할만한 수출입 성과가 기대된다.

브뤼셀지회는 1993년 벨기에 현지 한인 무역인을 중심으로 '재벨실업인협회'를 구성한 것이 효시이다. 당시 재외동포 무역인 5명을 포함해 요식업 등 다방면에서 사업을 하는 벨기에 교민 20명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이후 2003년까지 월드옥타의 현지 지회 역할을 수행했으나 녹녹치 않은 현지 여건으로 인해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

월드옥타 지회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2005년 이종춘 전 한인회장을 비롯한 교민들이 벨기에지회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해 12월 브뤼셀 시내 한국식당에서 회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춘 대표를 초대 지회장으로 지회를 출범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브뤼셀지회는 이후 벨기에 내 한국기업과 교민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 월드옥타 관련 프로젝트와 자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03

덴마크 DENMARK

코펜하겐지회 Copenhagen

북유럽에 위치한 덴마크는 국토가 한반도의 1/5 규모에 불과하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가 넘고 사회복지·환경·노사관계·인권·개발협력 등 각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가이다. 덴마크에는 총 9,000여 명의 한국 입양인이 살고 있으며,



지회설립일

2018년 2월 1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정보영



지회설립일

2015년 5월 22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추교진

수도인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교민 250여 명이 각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한인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코펜하겐지회는 2018년 2월 1일 초대 정보영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정보영 지회장은 KOTRA 코펜하겐 무역관장과 수석고문을 역임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공공외교 민간자문위원회 대표로 활동 중이다.

코펜하겐지회는 신규회원 모집,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 유럽 수출 B2B 지원, 덴마크 내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비즈니스 네트워킹 추진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코펜하겐지회가 덴마크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COVID 마스크 300장을 기증하기도 했다.

04

핀란드 FINLAND



헬싱키지회 Helsinki

헬싱키는 핀란드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며 정치·금융·교육·문화의 중심지이다. 주요산업은 해운업이 발달했다. 많은 국제항구와 핀란드 내 가장 큰 공항이 헬싱키에 소재해있다. 핀란드 이민자 중 약 30%는 핀란드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헬싱키 광역권에 살고 있다. 헬싱키는 세계에서 생활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한국과 핀란드는 2011년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비즈니스를 본격화했고, 한국은 핀란드의 아시아 세 번째의 교역국으



로 부상했다.

헬싱키지회는 2015년 5월 22일 초대 추교진 지회장을 필두로 핀란드 내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참여하여 설립했다. 추교진 지회장은 지금까지 지회를 맡아 이끌면서 지속적으로 한국 유망 제품들의 현지 진출에 큰 도움을 주는 등 현지 교민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핀란드는 우리 교민들의 이민 역사가 짧고 현지 진출한 이민자가 적은 나라임에도, 헬싱키지회는 회원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약 12명의 회원들로 차세대 행사 및 각종 소모임을 갖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2016년 이후 월드옥타 해외지사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을 핀란드에 소개하면서 판매 성과를 일구고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월드옥타 회원 및 한인 경제자문위원들로 이루어진 '제품발굴단'을 구성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모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현지 판매하면서 활동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특히 핀란드가 강점을 보이는 ICT 분야를 적극 활용하여 모국 ICT기업들과의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지 교민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월드옥타가 될 수 있도록 유럽 타 지역의 다양한 행사들에 적극 참여하면서 지회 간 회원 교류와 비즈니스 확대 기회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05

프랑스 FRANCE



파리지회 Paris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로서 정부기관이 밀집해 있고, 프랑스 주요 기업들이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정치·경제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세계의 문화 중심지이다. 많은 관광명소가 소재한 프랑스 제1의 관광도시로서 서비스업과 상업이 발달했으며,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이기도 하다.

파리지회는 1995년 11월 한인 무역인들의 모임으로 설립됐으며, 이후 회원 구성은 경제·국제 운송·법률·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됐다. 현재 지회 회원은 4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파리지회의 창립 당시 명칭은 '재불무역인협회'였다.) 파리지회는 1995년 조성용 협회 회장 이후 현재는 8대 장영배 지회장이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회원들 간 사업교류에 주로 집중하다가 2012년 월드옥타 파리지회로 가입한 것을 기점으로,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이 프랑스시장에

 **지회설립일**
1995년 11월 25일

 **역대 지회장**

- 제1대 조성용 제2대 영경수
- 제3대 신승선 제4대 김동락
- 제5대 나상원 제6대 김명기
- 제7대 배상원 제8-9대 유성은
- 제10대 장영배



진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프랑스 교민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 도약하기 위해 AECF(Association des Entrepreneurs Coréens en France)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정부에 정식 협회 등록을 했다. 2015년 파리지회가 주최한 월드옥타 유럽경제인대회는 24개국에서 200여 명이 참가해 성료됐다.

이밖에도 파리지회는 월드옥타와 차세대무역스쿨 유럽현지교육 및 모국방문교육 등의 일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마케팅사업·해외지사화사업·수출친구맺기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모국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의 꿈을 실현시켜나가고 있다.

자체사업으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정기 모임(운동, 세미나)과 연중행사인 무역인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16년 이후 매년 분기별로 경제인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 간 경영 노하우 공유와 더불어 차세대에게 실질적인 무역 경험 사례를 전파하는 등 내실 있는 지회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06

독일 GERMANY



베를린지회 Berlin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다. 넓은 숲과 많은 호수를 안고 있어서 도시 미관이 뛰어나다. 하펠강이 엘베강으로 흘러들어 북해와 연결되고, 오데르-슈프레 운하에 의해 발트해와도 연결돼 한때 화물선이 빈번히 드나들면서 독일 제3의 내륙항 구실을 했다. 주요산업으로는 화학공업이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독일의 무역 상대국으로는 유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나라도 독일의 중요 교역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부단한 현지 진출 노력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베를린지회는 2017년 6월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지회를 정비하여 창립회원 6명을 주축으로 재창립됐다. 초대 표락선 지회장은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회장을 수행하면서 지회의 정착

 **지회설립일**
2005년 최초 설립
2017년 6월 재창립

 **역대 지회장**
제1대 표락선



및 활성화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기여를 했고, 사업과 지회활동을 통해 긍정의 리더십을 인정 받으며 향후 교민사회를 이끌 적임자로 현지 교포들에게 알려져 있다.

2018년 7월 CIS·유럽경제인대회에 참가해 유럽 지역 경제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2019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대표자대회에 참가하여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지회 회원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뒷받침했다. 이외에도 매 분기 정기총회 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테마를 선정하고 외부인을 초빙해 강연을 진행하는 등 회원 간 유대와 친목을 다지기 위한 자체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베를린지회는 현재 총 14명의 정회원이 서비스·무역·IT·물류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베를린 내 한인 경제인들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과의 활발한 수출교류를 이루기 위해 향후 베를린 내 관련 기관 및 협회 등과도 제휴와 협력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뒤셀도르프지회 Dusseldorf

뒤셀도르프는 세계 무역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의 5대 국제도시 중 하나로, 국제비즈니스와 금융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많은 해외상사·은행 등이 소재해있다. 독일의 전자·통신산업을 선도할 뿐 아니라 철강·화학·기계·식품·기호품·금속가공업 등이 발달했고, 패션과 무역 박람회로도 유명하다. 포스코·두산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와있고, 1,000여 명의 뒤셀도르프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뒤셀도르프지회는 2006년 1월 31일 독일 중부의 쾰른 등을 포함한 지역의 창립회원들이 모여 결성했으며, 은정표 지회장을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2008년 회원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면서 정기모임과 교민 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등 월드옥타의 여러 행사에 참여해왔다. 또한 월드옥타 회원 간 거래를 추진하면서 현지시장 확대에 앞장서는 한편, 대북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평양무역상담회에도 참가했다. 차세대무역스쿨 현지교육 개최와 모국방문교육 참여를 통해 그동안 많은 수료생을

지회설립일
2006년 1월 31일

역대 지회장

- 제1대 은정표 제2대 김대경
- 제3대 여흥현 제4대 정중구



배출했고, 차세대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지회 Frankfurt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중서부 최대 도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경제 기적의 중심지로 번영하며 유럽에서는 보기 드물게 고층건물이 시 중심가에 밀집돼있다. 독일에 수입되는 한국 제품이 전 유럽으로 퍼질 수 있는 경제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이 유럽지사를 설치할 때 선호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이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내 한인 경제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프랑크푸르트지회는 1981년 11월 프랑크푸르트 KOTRA 사무실에서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초대 최병재 지회장을 필두로 창립됐다. 이후 교포 무역인들과 교류를 강화하며 월드옥타의 강점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교류 서비스 등을 홍보해오고 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지역 내에는 130여 명의 지회 회원들이 문화·경제·시사 등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서, 국내 중소



기업들이 독일시장 진입을 모색할 경우 각계 전문가들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크푸르트지회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기업들과 연계하여 협력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한 한민족 경제리더를 육성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힘쓰면서 2009년 차세대무역스쿨을 주관해 성공리에 마쳤으며, 2016년 8월에는 최대 행사인 유럽 통합 창업무역스쿨을 훌륭하게 치러냈다. 독일 인턴십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2020년에는 청년취업박람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함부르크지회 Hamburg

함부르크는 독일 제2의 도시로서 국제 규모의 항구와 공항을 갖춘 유럽 교통의 요지이다. 상업 종사 인구 비율은 독일의 모든 도시 가운데 가장 높다. 조선, 정유, 차체·타이어 제조 등이 중심산업이며, 기계·전기통신기·가구·섬유·담배·화장품산업도 발달했다.

함부르크지회는 2005년 초대 최낙채 지회장을 필두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모여 설립됐다. 최낙채 지회장은 함부르크 한인회 회장, 함부르크 법정 통역, 재독 과학기술자협회 부회장 겸 기금관리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그동안 한국기업과 교민사회가 함부르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함부르크지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부담 없는 활동을 위해 회비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교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함부르크지회는 월드옥타의 세계대회 등 중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정기사업으로 수행해 왔다. 현재에는 지회장이 공식이지만, 앞으로 지회 활성화를 통해 자체사업으로 회원 간 협력 증진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뮌헨지회 Munich

뮌헨은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최대의 도시이자 독일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이다. 금융·상업·공업·교통·통신·문화의 중심지이면서 식품가공·정밀광학기기·전기제품·화장품·의류·맥주 등의



지회설립일

2005년



역대 지회장

제1대 최낙채 / 현재 공석



지회설립일

2008년 6월 24일



역대 지회장

제1대 남호승 제2대 정재욱
제3대 이민찬 제4대 여종열
제5대 문홍출 제6대 황충연
제7대 정일규



지회설립일

2005년 12월



역대 지회장

제1대 김재탁 제2대 유준호

제조업이 활발하다. BMW 본사가 이곳에 있고 유럽 최대의 도산매 시장도 자리잡고 있다. 유서깊은 문화 도시로서 영화 제작과 도서출판산업을 견인하고 있기도 하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일 뿐 아니라 각종 행사와 회의가 자주 개최된다. 뮌헨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뮌헨지회는 2005년 12월 초대 김재탁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돼 교민사회와 한인 경제인들을 위한 활동을 개시했다. 2011년부터 유준호 지회장이 지회를 이끌어오고 있으며, 월드옥타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 폭을 넓히면서 자체사업 수행 역량을 다져나가고 있다.

07

이탈리아 ITALIA



밀라노지회 Milano

밀라노는 이탈리아 북부의 중심 도시로, 인구는 수도 로마 다음으로 많다. 광역도시권을 포함하면 이탈리아 최대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금융과 많은 기업 본사가 위치해 있어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세계의 패션과 디자인 중심지이며 산업·음악·스포츠·문학·예술·미디어의 중심지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섬유공업도 역사를 자랑하며 금속공업·화학공업·기계공업 등의 중화학공업도 발달했다.

밀라노지회는 이탈리아 한인 기업가들과 전 세계 월드옥타 회원들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방향을 구축하고, 지중해 국가로 우리 무역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08년 6월 24일 설립됐다. 설립 역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인 50여 개 회원사가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나가고 있다. 지회 회원들은 금속기계·자동차·패션·화학·건축설비·디자인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밀라노지회의 향후 계획은 월드옥타라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회원사 간 비즈니스 기회



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사업으로 글로벌 마케팅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 다른 계획은 젊은 차세대들과 함께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는 것이다. 차세대들이 기존 월드옥타 회원사의 사업과 글로벌 마케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비즈니스맨의 역량을 키우고 지회를 이끌어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모국기업의 지원과 해외 무역시장 확대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밀라노지회는 밀라노를 중심으로 하는 이탈리아 북부 한인회를 뒷받침하는 주요 단체 중 하나로, 각종 한인회 행사와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08

네덜란드 NETHERLANDS



암스테르담지회 Amsterdam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의 수도이다. 유럽 대륙의 도로·철도·항공로의 요지로서 KLM(네덜란드 항공사)의 본거지인 스키펀공항이 있으며 다양한 국제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로테르담항은 유럽으로 들어오는 물류의 60~70%를 처리하는 유럽의 대표 항구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유럽의 해외물품 수입은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돼 각국으로 배송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암스테르담은 유럽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다. 이처럼 무역업이 발달하고 유럽 물류의 중심지로 특화된 암스테르담에서 많은 월드옥타 회원들이 무역업에 종사하며 한국제품의 유럽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지회는 초대 윤강 지회장을 필두로 2016년 3월 14일 설립됐다. 출범 후에는 한국의 우수한 제조사들을 위한 다양한 월드옥타 수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유럽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제품을 수입·통관·판매하고 유럽 각국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16년 3월 14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윤강 제2대 이정우


09


노르웨이 NORWAY



오슬로지회 Oslo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전 세계 교역국가들 중에서 상위권에 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선박과 자동차 등이며, 수입품은 원유와 수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회설립일**
2010년 2월 11일

 **역대 지회장**
제1대 김완태 제2대 강병일



월드옥타 지회가 출범한 오슬로는 노르웨이의 수도로, 정치·문화·상공업의 중심지이며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부동항이 있다. 스카게라크 해협으로부터 약 100km나 만입한 피오르드 깊숙이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 내에 넓은 녹지와 숲을 보유하고 있어 경치가 아름답다. 오슬로지회는 2010년 2월 11일 초대 김완태 지회장에 의해 설립, 그동안 1인 지회로 운영됐다. 2018년 1월 월드옥타 차세대 출신인 강병일 제2대 지회장이 임명되면서 7명의 지회 조직으로 재정비한 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월드옥타의 여러 사업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외지사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르웨이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LED 등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을 노르웨이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무역스쿨의 참여를 통해 노르웨이의 차세대 육성에도 진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회 회원들이 연합뉴스 명예기자로 활동하며 노르웨이 소식들을 국내에 전하면서 월드옥타를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강병일 지회장도 유럽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위원장,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유럽 멘토 등으로 활약하면서 대외적으로 월드옥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르웨이와 한국 간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그 중심에서 오슬로지회가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다.

10

스페인 SPAIN



바르셀로나지회 Barcelona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 도시이다. 지중해 연안의 스페

 **지회설립일**
2007년 4월

 **역대 지회장**
제1대 김부향 제2대 홍재운
제1대 설성 제2대 박명신

인 최대 항구도시로서 항만 규모와 상공업 활동 측면에서는 스페인 제1의 산업도시에 해당한다. 또한 스페인 최대 관광도시로 연간 방문객이 2,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이다. 이외에 교육·의료·상업 등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며, 최근에는 바이오·나노 등의 첨단산업의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바르셀로나지회는 유럽 지역활성화대회 참석 당시 천용수 회장과 조통제 상근부회장의 추천으로 설립이 추진됐으며, 2007년 4월 스페인에서는 첫 지회로 출범하여 현재 약 15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초대 김부향 지회장, 박명신 사무총장과 함께 제1회 유럽 통합 차세대무역스쿨을 바르셀로나지회 주최로 성대히 거행했다. 행사 당시 차세대 참석자는 물론 유럽 지회장들과 임원 전체를 참가비 없이 무료 참석시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초대 김부향 지회장은 현지 교민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한국학교 이사 및 재무 이사 등 교민사회의 크고 작은 모임을 이끌며 현지에서 신임이 두터운 리더 중 한 명이다. 이를 기반으로 바르셀로나지회는 교민사회에서 단기간에 입지를 넓힐 수 있었다.

바르셀로나지회는 이후 홍재은 지회장, 설성 지회장에 이어 현재 박명신 지회장으로 이어지면서 월드옥타 세계대회 참석과 차세대무역스쿨 개최를 중심으로 안정된 운영체제를 갖춰나가고 있다.



마드리드지회 Madrid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이자 정치·문화의 중심지이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도의 역사가 짧지만 스페인 최대 도시이며 인구상으로는 유럽 제5대 도시에 해당한다. 마드리드는 각종 공업이 발달한 산업 도시로서의 중요성도 크며,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한국과 스페인의 수교 역사는 2020년 현재 70년을 맞이했으며, 양국 간 교역은 2011년 한·EU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마드리드지회는 2009년 2월 활동을 시작했다. 초대 감태석 지회장으로 시작하여 2010년에는



지회설립일
2009년 2월



역대 지회장

제1대 감태석 제2대 박철수
제3대 김영기



제2대 박철수 지회장, 2017년 제3대 김영기 지회장으로 현재까지 지회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한글학교 학생 및 생활환경이 어려운 국내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에 집중했다. 이후 한인 경제인 간 정보교류를 위한 세미나의 개최와 더불어 2017년 제4회 유럽 통합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하는 등 스페인 차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고, 10명 미만이던 회원이 김영기 지회장 취임 이후 40여 명을 넘어서는 등 지회활동이 가시적인 발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드리드지회는 스페인 내 소상인 및 기업인들이 회원으로 꾸준히 등록하는 등 갈수록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마드리드지회는 향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는 지회로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한편,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역량을 더욱 집중해 최고의 경제단체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11

스웨덴 SWEDEN



스톡홀름지회 Stockholm

스톡홀름은 스웨덴의 수도이자 북유럽을 대표하는 스칸디나비아반도 최대 도시이기도 하다. 많은 섬을 끼고 있어 북방의 베네치아라고도 불린다. 19세기부터 공업 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며 조선·전기공업이 활발하다. 최근에는 IT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문화·언론·정치·경제의 중심으로, 매년 노벨상 시상식이 이곳에서 열리고 있기도 하다.

스톡홀름지회는 2006년 6월 23일 창립회원 10명을 비롯해 2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현재 약 13명의 정회원(차세대 포함)이 이곳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며, 주류·식품·회계·세무·스타트업 컨설팅·전자·교육·뷰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인 경제활



지회설립일
2006년 6월 23일



역대 지회장

제1대 강진중 제2대 김현정
제3대 오영주

동에 기여하고 있다.

스톡홀름지회 초대 지회장인 강진중 지회장은 설립 초부터 지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현지 입양협회와 교민사회에서 봉사해왔으며, 서유럽 부회장으로서 CIS·유럽 지역 한인 경제인들의 성장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으로도 정평이 나왔다. 2015년 1월 제2대 지회장으로 취임한 김현정 지회장은 2005년 이주하여 국립대학 KTH 공대를 수료했으며, 한인 기업가로 성장하던 중 한국과 스웨덴 의료기기사업 차 다시 한국으로 이주했다. 제3대 지회장으로 취임해 지회를 이끌고 있는 오영주 지회장은 1989년 스웨덴으로 이주하여 현지 세무·회계 대행업계의 CEO로 활동하는 외에도, 월드옥타 지회장이자 스웨덴 한인회 부회장으로서, 월드옥타 신규회원 모집과 다양한 행사에 열성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교민사회에서 월드옥타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톡홀름지회는 그동안 차세대무역스쿨 수료생을 꾸준히 배출해왔다. 2015년에는 제2회 유럽 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을 개최, 유럽과 CIS 지역 차세대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했다.

또한 대한민국과 스웨덴 간 무역 및 통상진흥에 이바지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한국·스웨덴 교류 60주년을 맞아 스웨덴왕궁에서 국왕 내외가 직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를 맞이하는 한편, 한국·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행사도 개최돼 한국과 스웨덴 기업인들의



교류 및 비즈니스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같은 날 한국·스웨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스톡홀름지회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간 MOU가 체결되며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스톡홀름지회는 이밖에도 모국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현지 경영자총회에도 가입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현지 기업인단체들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들과의 교류로 모국상품들을 알리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12

스위스 SWITZERLAND




취리히지회 Zurich

취리히는 스위스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도로와 철도의 분기점에 해당해 유럽의 각 방면으로 직통열차가 발착하는 교통로의 요지이기도 하다. 도심에서 11km 북쪽에 있는 클로텐비행장은 스위스 최대의 공항으로 세계 각지와 연결된다. 취리히에는 리마트 강줄기를 따라 양안에 상가와 건물들이 늘어서 있으며, 중심가인 반호프 거리는 스위스 최대의 쇼핑가로 이루어진 상업의 중심지로 풍요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한다. 시내에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어 금융허브 도시로도 위용을 자랑한다. 제약과 의료분야의 연관산업이 발달했고, 최근에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스위스 간 교역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FTA 체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취리히지회는 2006년 5월 초대 김수미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이후 문정순 지회장이 지회를 이끌어 오면서 3개월마다 1회씩 정기모임을 가지며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해왔다.

취리히는 스위스 제1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국제화된 도시환경 때문에 최근 스위스에 정착하는 차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향후 취리히지회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회설립일
2006년 5월

 역대 지회장
제1대 김수미 제2대 문정순
현재 공석

 지회설립일
1997년 10월

 역대 지회장
제1대 이종구 제2대 신우승
제3대 정완진 제4대 손병권

13

영국 U.K.



런던지회 London

영국의 수도인 런던은 유럽 시장의 중추이자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이기도 하다. 이에



절맞게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지역에서 한국과 교역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국가이며, 2019년에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브렉시트(Brexit) 이후에도 안정적인 통상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런던지회는 영국에서 활동하던 한인 경제인들이 1997년 10월 뉴욕에서 열린 제2차 Korean Network Convention(현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석한 것이 설립의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 경제가 대기업들의 잇따른 부도와 외환 부족에 시달리며 큰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당시 주영 한국대사가 참석자들에게 한국제품 수입을 적극 권유하면서 월드옥타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초대 이종구 지회장의 선출과 함께 런던지회가 탄생됐다.

설립 초기 런던지회는 이종구 지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규합과 지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주력했고, 이후 새로운 지회장들을 맞아 월드옥타와 성장의 보폭을 함께하며 사업구조도 체계화됐다. 2009년에는 차세대 및 젊은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런던지회가 제1기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했다. 차세대들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교민은 물론 유관단체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월드옥타를 알렸고, 이런 노력으로 차세대 수료생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 네트워크가 구축돼 지회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됐다. 런던지회는 2019년 유럽 통합 글로벌 차세대창업스쿨을 개최하는 등 유럽의 차세대 경제인을 양산하는 사관학교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또 하나의 주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시장인 런던에 관심을 갖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해외지사화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회 회원이 글로벌 마케터가 되어 상품의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런던지회는 글로벌 마케터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옥스퍼드지회 Oxford

옥스퍼드는 영국 잉글랜드 옥스퍼드셔주에 있는 대학 도시이다. 마가렛 대처·토니 블레어 등을

배출한 명문 옥스퍼드 대학이 있는 대학도시인 만큼 인쇄업과 출판업에 힘입어 20세기 초반 급속하게 산업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했다. 주요산업은 교육과 출판·자동차 제조 외에 최근에는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새로운 명성을 얻고 있으며, 패슬·브레노믹스·래브스텝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다.

옥스퍼드지회는 이러한 옥스퍼드의 산업적 특성에 맞물려 한인 경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9월 19일 초대 한재희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한재희 지회장은 교민사회에서 신앙이 높은 데다 모국의 수출 증진과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지회장에 추대됐다. 향후 지회 활동의 다각화를 통해 옥스퍼드지회가 활성화되면 명실공히 런던 외곽 지역 한인 경제인들의 문화·경제·사회적인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영국 내 월드옥타의 양대 지회로 면모를 갖추는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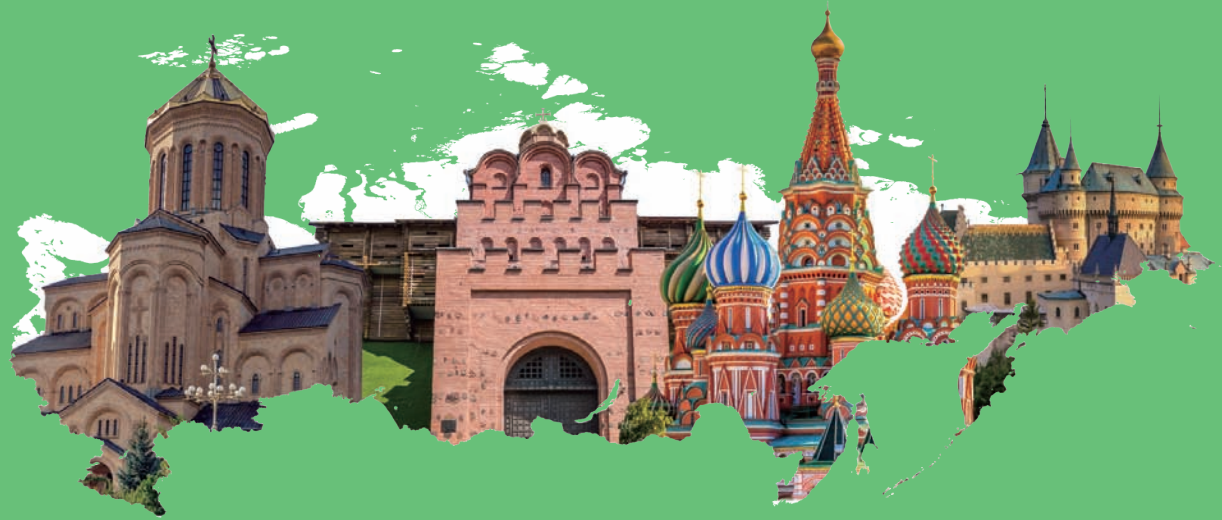
지회설립일
2014년 9월 19일



역대 지회장
제1대 한재희 / 현재 공석



동유럽 · CIS



- 01 불가리아 · 소피아 / 02 체코 · 프라하 / 03 조지아 · 트빌리시 / 04 헝가리 · 부다페스트 / 05 카자흐스탄 · 알마티 /
- 06 키르기스스탄 · 비슈케크 / 07 몽골 · 울란바토르 / 08 폴란드 · 바르샤바 / 09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 / 10 러시아 ·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 11 슬로바키아 · 브라티슬라바 / 12 터키 · 이스탄불 / 13 우크라이나 ·
- 키예프 / 14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

01

불가리아 BULGARIA



소피아지회 Sofia

소피아는 불가리아의 수도이다. 국립은행과 증권거래소, 많은 기업들이 몰려있는 금융중심지이기도 하다. 불가리아의 주요산업으로는 식품·화장품·농자재·스마트팜·중고자동차 및 부품들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불가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와 저렴한 인건비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하고 있다. 특히 소피아는 스타트업 기업 유치에서 세계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등 여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유럽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호기가 되고 있다.

소피아지회는 2010년 5월 10일 초대 박종태 지회장을 필두로 회원 8명으로 설립됐다. 불가리아에서 사업체를 30년간 운영해온 박종태 지회장은 불가리아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성공적인 현지사업을 지원하며 지회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지회 회원들은 식품·화장품·농자재·스마트팜·중고자동차 및 부품 등의 사업에 주로 종사하며, 한인 경제활동을 위한 시장 개척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지사화사업 등 월드옥타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열악한 교민 사업체 기반에 안정적인 사업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유럽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교민사회에 마스크를 제공하며 월드옥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일조했다.

불가리아는 교민 사업자 수가 많지 않은 지역이어서 소피아지회도 한정적인 회원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다행히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2007년 불가리아가 EU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한국기업들의 유럽진출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교민 사업체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피아지회는 회원 간 상호 유대를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데 힘을 기울이면서 현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들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모국의 다양한 상품을 알리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회설립일

2010년 5월 10일



역대 지회장

제1대 박종태



02

체코 CZECH Rep.



프라하지회 Prague

프라하는 중부유럽에 위치한 체코의 수도이다. 체코 최고의 공업도시로 경제력이 집중되었으며, 자동차·공작기계·석유화학·유리공예 등이 발달했다. 한·체코 수교가 2020년 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관련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등 한국은 체코의 3대 투자국으로 올라섰다.

프라하지회는 1993년 5월 KOTRA 프라하 무역관 주도 하에 3개 교민 무역회사를 기반으로 설립됐다. 초대 김만석 지회장은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한인회 명예회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회장을 겸임하며 현지 한인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제2대 성낙한 지회장과 제3대 김정섭 지회장은 사업 규모 축소로 한국으로 재이주했고, 현재 김만석 지회장이 제4대 지회장으로 재취임해 지회를 이끌고 있다.

초기에는 KOTRA 무역상담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비롯해 상품교역전 참가 등의 활동들을 펼쳤으나, 체코 회원사들의 철수로 인해 정기행사 개최를 중단하고 오랜 정체를 겪게 됐다. 2004년 평양수출상담회 및 제주도 한인경제인대회를 시점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여 그동안 동유럽 내 한인 경제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유럽 통합 차세대무역스쿨에 강사와 차세대를 파견하는 등 월드옥타 차세대 인재육성에도 힘썼다. 프라하지회는 최근 해외 글로벌 마케터 사업, 해외지사화사업 등을 본격화하면서 차세대를 중심으로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총 17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12명의 차세대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자체사업으로는 유럽 내 상임이사, 지회장 단합 간담회 겸 골프대회, 전임 상집위원 초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유럽 내 지회 간 회원 교류와 비즈니스 확대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회설립일

1993년 5월



역대 지회장

제1대 김만석 제2대 성낙한
제3대 김정섭 제4대 김만석



매년 한인회 후원을 통해 현지 교민사회에 월드옥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OTRA 현지 무역관장을 지회 고문으로 위촉하여 1년에 두 차례 연례 모임을 통해 지회와 KOTRA 간 업무협의를 하고 KOTRA 사업에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공관을 통한 대구·경북 지역 후원 모금 행사에 참여하는 등 월드옥타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규회원 모집에도 앞장서고 있다.

향후 계획으로 프라하지회는 모국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현지인들이 주도한 체·한 경제인협회에도 가입하여 협회 간 공동협력 행사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다양한 기업들과 자매결연을 통해 모국상품을 현지에 중점적으로 알리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03

조지아 GEORGIA



트빌리시지회 Tbilisi

트빌리시는 조지아의 수도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입지로 인해 오래 전 실크로드의 길목으로 번영했으며, 오늘날에도 조지아의 경제중심지로 도소매업과 무역이 발달했다. 또한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유서깊은 역사를 기반으로 건축물이 잘 보존돼 있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이다. 주요산업으로는 광산·금속가공·공작기계·식료품·목재가공·직물·전기제품 등의 공업과 포도재배 등 농업이 발달했다. 조지아는 한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기업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고, 유럽의 도시보다 임금이 낮아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은 밝다. 트빌리시지회는 초대 이광복 지회장을 필두로 2013년 1월 10일 설립(지회장 인준일 기준)됐다. 이광복 지회장은 현지 한인들의 안전과 권익신장에 보탬이 되고자 2006년 조지아 한인회 설립을 주도하여 초대 회장으로 봉사했고, 2013년에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월드옥타 트빌리시지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인의 진출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상 회원 수는 적지만 회원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성실히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조지아 현지 사회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한인 경제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

트빌리시지회는 월드옥타의 프로젝트인 해외지사화사업을 중점 수행 중이다. 회원들의 노력으로 한국제품의 비중이 크지 않은 조지아에서 현재까지 수백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창출하는 개가를 거두었다. 또한 트빌리시지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조지아 중소기업기업들의 대한민국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13년 1월 10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이광복



이외에도 트빌리시지회는 ‘조지아 비즈니스 포럼’의 공식 스폰서이자 ‘케이팝 조지아 예선전’, ‘독도한국문화영화제’, ‘한국·조지아 경제포럼’ 등 주요 행사를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의 후원 사로서 현지사회에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과 조지아 양국의 경제발전과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조지아 정부로부터 경제공익단체로 정식허가를 받았다.

04

헝가리 HUNGARY



부다페스트지회 Budapest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유서깊은 도시로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으며, 헝가리 관광은 대부분 부다페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부다페스트는 철도·도로·하천·항공 교통의 요지로, 특히 지하철은 유럽대륙에서 처음 설치됐다. 대표적인 산업은 기계공업이고, 철강·비철야금·화학·섬유·식품 등 공업도 활발하다.

중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헝가리는 주변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유럽 진출을 모색할 때 전진기지로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 등의 장점들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과 헝가리는 매년 교역과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기업들의 헝가리 진출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부다페스트지회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나가고 있다.

부다페스트지회는 2005년 초대 최귀선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최귀선 지회장은 설립 이후 교민사회의 단합에 기여함은 물론 수시로 한국무역사절단 상담회, 지역경제인 대상 세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대사관 KOTRA 무역상담회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왔다. 헝가리에는



지회설립일
2005년



역대 지회장
제1대 최귀선 제2대 이영인



한인회가 없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다페스트지회 회원들 간 친목이 두터운 편이며, 회원들은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서로 협력하면서 지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헝가리 지역사회 내에서 높아진 교민 위상을 기반으로 현지인 사업가들과 협력관계를 활성화하며 사업영역 확장의 기회로 연계하고 있고, 지역사회 정치인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어 한인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그동안 월드옥타가 개최하는 세계대표자대회와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적극 참여했으며, 월드옥타와 연계하여 모국기업의 무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지사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05

카자흐스탄 KAZAKHSTAN



알마티지회 Almaty

알마티는 중앙아시아 북부에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이다.(현재 수도는 아스타나이다.) 높은 산지로 둘러싸인 알마티는 과거 실크로드를 따라 유목민들이 왕래했으며, 철도의 연결과 함께 도시로 성장했다. 주요산업은 농기계·식품공업·면공업 등의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한·카자흐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현재 중앙아시아국가 중 한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알마티지회는 2005년 KOTRA의 권유로 설립됐으며, 현재 지회 조직은 3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대 강인희 지회장은 한인회 회장을 역임하며 지회 설립에 큰 역할을 하는 발자취를 남겼다. 전임 한인회 회장인 임병률 지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현 김성태 월드옥타 알마티지회 지회장은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2018년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각각 이룩하기도 했다. 알마티지회는 강인희 지회장 외에도 엄영섭, 조성관,



지회설립일
2005년



역대 지회장
제1대 강인희 제2대 김성태



임병률 회원이 한인회 회장직을 역임하는 등 4명의 한인회장을 배출하며 지역사회에서 월드 옥타의 공지와 위상을 제고했다.

알마티지회는 한인기업의 부흥과 교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며, 현지 사회에서의 유대관계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카자흐스탄 한글학교와 한국 교육원 등의 지원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한인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백일장·교민체육대회 행사 등을 적극 협찬하고 있다. 또한 인야즈(외국어대학)와 카즈구(카작국립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한인 공동체와 유기적인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유관기관·KOTRA·지상사·한인회 관계자를 초청하여 월드옥타 회원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공동 행사 개최를 통해 정보교류와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KOTRA 알마티 지사·지상사연합회·중소기업연합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사업도 진행하면서 향후 카자흐스탄 내 한인 사업체들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있다.

06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비슈케크지회 Bishkek

키르기스스탄은 구소련 붕괴 이후 1991년 가장 먼저 독립한 국가로 CIS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도는 비슈케크로 교통·문화의 중심지이다. 비슈케크는 키르기스스탄 내 대부분의 공업제품을 생산하며, 농기계·섬유·가구공업 등이 발달했다. 키르기스스탄은 1992년 한국과 수교를 시작했고,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한국의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높고 한국산 제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교역 전망은 밝은 편이다.

비슈케크지회는 2006년 4월 21일 초대 전상중 지회장을 필두로 교민 사업자 70여 명이 모여 설립했다. 이 지역 첫 교민단체로서 출범식 자리에는 고려인협회 회장과 고려인 출신 국회의

 **지회설립일**
2006년 4월 21일

 **역대 지회장**
제1~4대 전상중 제5~6대 오상택



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경제수석 등도 참석했다. 비슈케크지회의 본래 명칭은 키르기스 한인 경제인협회이다. 비슈케크지회는 2008년 월드옥타 106번째 지회로 승인받은 데 이어 재외동포재단과 키르기스 정부에 재외경제단체로 공식등록됐다.

2017년부터 월드옥타 해외지사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출새싹기업, 수출친구 맺기, 수출얼라이언스, 수출바우처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2018년에는 지회사업으로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찾아가는 수출상담회를 비슈케크에서 개최했다. 비슈케크지회는 차세대 마케터 교육, 무역실무 강의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도 사명감을 갖고 실시하고 있다.

비슈케크지회는 세계대표자대회·세계경제인대회·지역경제인대회 등의 월드옥타 행사에도 매년 함께 하고 있다. 2019년에는 CIS·유럽경제인대회 및 한·키르기스 비즈니스파트너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세계 각지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었다. 특히 CIS·유럽경제인대회는 지역경제인대회를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는 처음 개최해 큰 의미가 있었으며, 한·키르기스 수교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하여 대회 자리가 더욱 빛났다.

옛 실크로드의 중심이었던 CIS·중앙아시아는 예전 대상의 행렬이 길은 오가던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새로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슈케크지회가 한국기업의 신북방 시장진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월드옥타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07

몽골 MONGOLIA



울란바토르지회 Ulaanbaatar

한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26일 수교했으며, 2011년 이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한국은 세계 4위 규모를 차지하는 몽골의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 양국의 수출입구조와 성장잠재력을 감안하면 향후 교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동향에 부합하여 울란바토르지회는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들의 몽골 수출 시장 개척을 돕는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몽골의 수도이자 정치·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 울란바토르에는 현재 한인 3,0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에 주몽골 한국대사관과 한인회가 매년 한국주간행사(Korea week)를 개최하면서, 한국음식축제·전통의상 퍼레이드·K-POP 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울란바토르지회는 초대 이성욱 지회장을 필두로 2017년 10월 11일 설립됐으며, 재외동포 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교민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을 다지고 있다. 이성욱 지회장은 월드옥타 제14통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지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회설립일
2017년 10월 11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이성욱

08

폴란드 POLAND



바르샤바지회 Warsaw

바르샤바는 폴란드의 수도이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 철도·도로교통의 요지로 전차·버스 노선망이 발달했으며, 하항(河港)과 공항도 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에 특화된 도

 지회설립일
2006년 1월

 역대 지회장
제1대 우상해 제2대 임신춘
제3대 이장규 제4대 남중석
제5대 고신석 제6대 남택명
제7대 이흥민



시이지만, 프라가·제라니 등의 지구에 기계·금속·자동차·화학·섬유·광학기기·정밀기계·인쇄·식품·트랙터·자동차 등의 공장이 들어서 있다. 폴란드에서는 압도적인 경제규모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있으며, 한국 대기업들도 지사를 설치하고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바르샤바지회는 한인사회의 급속한 확대에 힘입어 2006년 1월 바르샤바 KOTRA 무역관 회의실에서 결성됐다. 초대 우상해 지회장을 필두로 창립회원은 13명으로 시작했고, 현재는 4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과거 초기 회원들의 주요사업은 무역업과 요식업이었지만, 이후 젊은 회원들이 참여하면서 안경·인공지능·식품·미용 등 사업영역이 다양해졌다.

폴란드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이 많아지고 동유럽 국가로 수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늘면서 바르샤바지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폴란드 내 교민들은 대기업 등의 지사 근무원이 대부분이어서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타 유럽 국가와는 달리 월드옥타 회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르샤바지회는 한국 교민과 국내 중소기업들이 폴란드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닦고 있다. 바르샤바지회는 월드옥타 주최의 행사 참여는 물론 회원들끼리 정기·비정기 모임을 확대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 열리는 상품전시회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통역과 민원을 맡아 행사 진행에 업무 지원 역할을 하는 등 유관기관 및 현지 교민들과의 교류협력사업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우수지회상을 수상했다. 바르샤바지회는 유럽·CIS 지역에서 유일하게 본부 상임이사 4명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09

루마니아 ROMANIA



부쿠레슈티지회 Bucharest

동유럽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쿠레슈티는 국제교통 최대 중심지로 우크라이나·불가리아·헝가

 지회설립일
2014년 4월

 역대 지회장
제1대 김정희 제2대 양승예
제3대 이은행

리·유고슬라비아와 국제철도로 연결되고, 공항을 통해 유럽의 주요 도시로 신속한 이동이 용이하다. 루마니아의 산업·금융·언론·예술·문화의 중심지이며 과학아카데미와 각종 부속연구소·공공도서관·대학·박물관 등이 모여있다. 북쪽의 산맥과 흑해 연안의 자연, 시내 곳곳의 역사적인 건축물도 유명하다. 루마니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로, 향후 한국기업들의 지속적인 진출과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대우조선이 루마니아에 조선소를 건립하기도 했고, 자동차부품·전자기기·기계류 등을 수출하며 교역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루마니아의 재외동포 중 절반 가까운 수의 교민이 부쿠레슈티에서 살고 있으며, 2014년 4월 이곳에서 부쿠레슈티지회가 설립됐다. 루마니아와 한국 간 교류는 규모가 아직 크지 않지만, 부쿠레슈티지회가 국내 기업들의 루마니아 시장 진출을 견인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현지에 대한민국을 꾸준히 알리는 한편, 지회 회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사업 기회를 제공하면서 한인 경제인들의 성장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10

러시아 RUSSIA



모스크바지회 Moscow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이자 철도·도로·항공 교통의 중심지이다. 또한 러시아 최대 공업도시로서 자동차·전기·공작기계·제강 등의 대공장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직물·식료품 등의 경공업 관련 제조업도 발달했다. 모스크바지회 회원들은 식품·화장품·보일러·기계·산업설비·직물·생활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모스크바지회는 2004년 초대 차블라미르 지회장을 필두로 첫 출범한 후 언어 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이 침체됐다. 이후 거대 시장 러시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2017년



지회설립일
2004년 최초 설립
2017년 4월 20일 재창립

역대 지회장
제1대 차블라미르
제2대 전알레그산드르
제3대 신광희

지회설립일
2006년 최초 설립
2019년 2월 1일 재창립

역대 지회장
제1대 정천호

지회설립일
2008년

역대 지회장
제1대 이경중 제2대 김경태

10여 명의 회원이 주축이 돼 지회를 재창립했다.

2017년 재시동을 건 모스크바지회는 타 월드옥타 지회와 MOU 체결을 통해 상호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모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을 돕기 위한 현지 정보 제공 및 해외지사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수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터 교육을 실시하면서 내부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모국 중소기업을 러시아 전자조달분야와 대형 유통망으로까지 연계시켜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지회 Saint Petersburg

러시아 북서부에 위치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2의 수도이다. 모스크바에 이은 대공업 도시이며 러시아 최대 무역항이 이곳에 있다. 선박·터빈·발전기·기계류 등의 기계 제조와 화학공업·섬유공업·인쇄산업 등이 발달했다. 한국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 및 협력업체·롯데·CJ 등이 진출해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수는 1,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지회는 2019년 2월 1일 정천호 지회장을 필두로 재창립돼 현재 회원 11명, 차세대 회원 5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인구가 약 750만 명으로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 수요 기반이 충분할 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확산된 한류 열풍 등 우리 기업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줄 호의적인 여건이 조성돼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지회는 월드옥타의 수출지원 프로젝트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러시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블라디보스토크지회 Vladivostok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 있는 최대의 항구도시 겸 군항이다. 북극해와 태평양



을 잇는 북빙양 항로의 종점이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시발점이자 종점이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주요산업은 선박수리업·해운·어업 등이며, 이외에 악기·라디오·목공·도자기·의약품 제조 등 경공업도 활발하다. 한국기업들은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인 의류·가전제품 등의 유통을 중심으로 러시아시장 진출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2008년 설립된 블라디보스토크지회도 현지 한인 경제인들과 협력하여 한국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아가 모국기업들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등 인근 국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구축할 계획이다.

블라디보스토크지회는 초대 이경중 지회장에 이어 현재 2대 김경태 지회장이 취임하여 지회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11

슬로바키아 SLOVAKIA



브라티슬라바지회 Bratislava

브라티슬라바는 슬로바키아의 수도로 의회와 행정부가 자리하고 있으며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 금융기관을 비롯한 슬로바키아 주요 기업들이 이곳에 본부를 두고 있고, 다국적 기업들도 현지 공장과 서비스센터 등을 설립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서유럽과 근접한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이런 장점 때문에 유럽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이자 물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국민 1인당 자동차 생산 대수가 가장 높을 만큼 자동차 관련 산업이 발달한 국가이기도 하다. 숙련된 노동력을 글로벌 기업들을 슬로바키아로 유입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산업 기반을 밑거름으로 기아 (전기)자동차 공장 및 삼성전자 TV 공장 등의 한국 대기업들도 현지에 진출해있으며, 대부분의 월드옥타 브라티슬라바지회 회원사들 또한 삼성TV, 기아자동차 협력사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19년 4월 15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정하동



브라티슬라바지회는 2019년 4월 15일 초대 정하동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된 신생 지회로, 현재 총 1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브라티슬라바지회는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소모성 자재 등을 대상으로 한국 중소기업들과 연계하여 수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기존 자동차·TV분야에 치중돼 있는 사업 아이템을 확장함과 동시에 사업 현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브라티슬라바지회가 한국기업과 월드옥타 회원사들을 연결시켜 현지 시장 판로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다.

12

터키 TURKEY




이스탄불지회 Istanbul

이스탄불은 터키의 최대 도시이다. 수도는 앙카라이지만 이스탄불이 도시도 크고 대외적으로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다. 이스탄불은 터키의 경제 중심지로 시의 중심에는 상업이 발달했다.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국가로,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교역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국으로, 원유·화학제품·금속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2013년 FTA 체결 이후 한국과 터키 간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30여 년 전부터 대기업 위주로 터키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KOTRA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시장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해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스탄불지회는 KOTRA의 주선이 계기가 되어 2011년 초대 김성렬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제2대 김주찬 지회장에 이어 2017년부터 제3대 정지섭 지회장이 지회를 이끌고 있다. 현재 이스탄불지회에서 활동하는 회원 수는 정회원 25명(글로벌 마케터 7명), 차세대 4명 등 약 30여

 지회설립일
2011년

 역대 지회장
제1대 김성렬 제2대 김주찬
제3대 정지섭



명이다. 지회는 유럽의 중국이라고도 불리는 8,500만 터키 시장에 진입하려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글로벌 마케팅사업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스탄불지회는 자체 웹사이트를 제작해 진행상황을 업로드하면서 수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에는 동유럽 CIS국가 지회장회의를 개최하고, 전주대학 학생들의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회활동에 가속도를 붙여나가면서 지역사회에 월드옥타를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13

우크라이나 UKRAINE



키예프지회 Kiev

키예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이며 가장 큰 도시이다. 우크라이나의 정치·경제·문화·산업·과학 및 교육의 중심지이고, 키예프 지하철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수단 및 인프라 시설이 비교적 잘 발달돼 있어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한국 교민 수는 약 1만 3,000명에 이른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동부와 러시아 연방과의 접경에 있는 나라로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전체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이다. 우크라이나의 주요산업은 석탄·철광·선철의 생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기계공업의 중심지로서 자동공작기계·촬영기·라디오·토목기계 등의 생산이 활발하다. 우크라이나의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양국 간 교역은 활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품으로 자동차와 차량부품을 비롯해 가전제품·의료기기·플라스틱 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키예프지회는 초대 김무회 지회장을 주축으로 2008년 10월 28일 설립됐다. 출범 이후에는 키예프 내 한인 경제인들이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월드옥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회설립일
2008년 10월 28일

역대 지회장
제1대 김무회

지회설립일
2008년 1월 25일

역대 지회장
제1대 김재균 제2대 윤광희
제3대 김종규 / 현재 공석

14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타슈켄트지회 Tashkent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중부에 있는 국가로서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1991년 9월 완전 독립했다. 독립 후 가전과 생필품 마련에 곤경을 겪고 있던 우즈베키스탄에 월드옥타의 회원사가 한국산 제품을 처음으로 들여와 공급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경제는 낙후되어 있지만 금과 천연가스의 부존량은 세계적이다.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외국 자본의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 수는 약 2만여 명으로 자영업자·상사원·유학생·NGO 등이 주류를 이룬다. 한국기업들도 이곳에 진출하여 활동 중이며,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한류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 매우 좋다.

타슈켄트지회는 2008년 1월 25일 초대 김재균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이후 한국 대사관과 지회원 및 교민 기업인을 위한 경제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교민사회의 단합에 앞장섰다. 또한 월드옥타 지회로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하면서, 2011년 5월 CIS 국가로는 처음으로 지역경제인대회를 유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월드옥타와 협력하여 지사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타슈켄트지회 회원사들은 생필품·전자제품·농업분야 제품·기계류·원자재 등을 한국에서 수입해 우즈베키스탄에서 판매하고 있다.



5

중동·아프리카



01 알제리·알제 / 02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 두바이 / 03 바레인·바레인 / 04 보츠와나·가보로네 / 05 이집트·카이로 / 06 가나·아크라 / 07 이란·테헤란 / 08 쿠웨이트·쿠웨이트 / 09 카타르·도하 / 10 사우디아라비아·젯다, 리야드 / 11 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01

알제리 ALGERIA



알제지회 Algiers

알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제리의 최대 항구도시로 정치·문화·경제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이다. 프랑스 문화와 아랍·아프리카 문화가 교차하는 곳으로 다채로운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이다.

알제지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월드옥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KOTRA 무역관장의 추천을 받은 초대 주남진 지회장이 중심이 되어 2018년 3월 26일 설립됐다.

2010년 회사를 창업한 주남진 지회장은 알제리에 지사 겸 합작사를 운영하며 사하라 사막의 풍부한 자원과 공업이 활성화된 알제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이용하여 건설장비·부품·정유 및 발전소 입찰 개발 등의 영역에서 한국과의 무역을 주도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18년 3월 26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주남진

02

아랍에미리트 ARAB EMIRATE



아부다비지회 Abu Dhabi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로서 1958년 매장량 5억 톤 규모로 추정되는 유전이 발굴되면서 급격히 발전했다. 1968년에 시작된 5개년 개발계획에 힘입어 현대식 관공서와 호텔·공영 주택이 들어섰고, 고속도로를 통해 북동쪽의 두바이, 동쪽의 아인 오아시스와 연결된다.

아부다비지회는 2010년 10월 26일 초대 김현중 지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됐으며, 이동재 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지회를 이끌고 있다.



지회설립일

2010년 10월 26일



역대 지회장

제1대 김현중 제2대 이동재

두바이지회 Dubai

두바이는 중동의 금융중심지이자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피파, 세계 각 대륙과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을 보유한 곳으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의 중동·아프리카 본부 사무실이 위치해있어 기업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Business Friendly) 도시이다.

두바이지회는 2014년 6월 26일 초대 차진성 지회장과 창립회원 10명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2017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개최해 한인 경제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이바지했고, 특히 부설행사로서 중동 수출무역상담회를 진행해 모국 중소기업이 중동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회설립일

2014년 6월 26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차진성 제2대 정숙천



지역의 특성상 주재원이 많고, 유학생 및 차세대 창업인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쿠웨이트·중동·아프리카 차세대무역스쿨에 참여하며 차세대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각종 분과·소모임 등을 통해 회원 간 유대를 다지고 한글학교 후원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특히 UAE 한인회가 운영하는 세종학당을 후원하며 현지사회에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교민사회에 월드옥타 이미지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두바이지회는 모국 중소기업의 수출도모를 위해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현지 상공인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모국상품을 알리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03

바레인 BAHRAIN

바레인지회 Bahrain

페르시아만에 자리한 바레인은 33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된 도서국(島嶼國)이다. 페르시아만 최초로 석유를 발견한 국가이며, 중동 지역 최대의 미국 해군기지가 자리한 곳이다. 2008년 9월 1일 설립된 바레인지회는 초대 오한남 지회장을 필두로 한글학교 지원과 현지의 한국 건설업체 발주를 돕는 역할에 충실했으며, 한국 해군이 바레인을 방문했을 때 미국 및 타 국가 해군과의 가교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동안 지회는 월드옥타의 행사에 참석해 전 세계 회원과의 정보교류를 활발히 이어왔으며,



지회설립일
2008년 9월 1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오한남 제2대 김용백



협회 공식 행사 및 활성화대회에도 참여하는 등 지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4

보츠와나 BOTSWANA

가보로네지회 Gaborone

가보로네는 보츠와나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로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도서관과 세계적 규모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운영하는 'Debswana' 본사가 있는 곳이다. 가보로네지회는 2015년 9월 7일 김채수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으며, 현재 12명의 정회원이 활동 중이다. 회원들은 타이어·자동차·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며 지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15년 9월 7일

역대 지회장
제1대 김채수



가보로네지회는 차세대를 양성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1년 지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05

이집트 EGYPT



카이로지회 Cairo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는 중공과 아프리카·유럽을 잇는 교차점에 있어 예전부터 북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국제도시로 기능해왔다. 아랍연맹의 본부가 위치한 곳으로 이슬람사원과 궁전 등의 건축물·박물관·그 밖의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해 관광업이 발달해있다.

이집트 최초의 한인 경제인 단체인 카이로지회는 2005년 10월 5일 초대 조경행 지회장을 포함한 10여 여명의 한인 경제인이 중심이 되어 설립됐으며, 주재국 동포 무역인 대상으로 설립 회원을 모집할 때 KOTRA 무역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지회 회원들은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모국상품 구매와 대한교역 강화 방안의 협의 창구로서 지회 모임 정례화를 구축했다. 특히 지회는 KOTRA와 협력해 아프리카 시장개척 및 발굴사업(2005~2010년)을 진행하여 한국기업의 현지 정착에 힘을 보탰다.

지회는 매년 3~4회의 모임을 통해 회원 간 유대를 다져가고 있으며, 2018년 개최된 중동·아프리카 경제인대회를 기점으로 지역 내 경제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는 물론, 차세대를 발굴하고 신규회원을 확보하는 등 지회의 위상이 강화됐다.

카이로지회는 중동 내 최초 한국어학과를 설립한 Ain Shams 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했고 매년 한인회 행사에 찬조금 지원을 포함,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문화원과 협업으로 한국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지회는 카이로 한국학교와 긴밀히 소통해 장학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회설립일
2005년 10월 5일

 역대 지회장
제1~3대 조경행 제4~6대 조찬호
제7~8대 이응석

 지회설립일
2018년 3월 26일

 역대 지회장
제1대 민태경 제2대 김승철

 지회설립일
2017년 2월 1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전철현

06

가나 GHANA



아크라지회 Accra

아크라는 가나 공화국의 수도로서 227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최대 도시이자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이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높은 삶의 질을 갖춘 현대적인 도시이다.

가나지회는 초대 민태경 지회장 및 5인의 발기인들이 뜻을 모아 설립을 주도했으며, 2018년 3월 26일 지역사회 발전과 한국과의 교류 증진, 월드옥타의 발전과 번영을 목표로 정식 출범했다.

현재 타 지회보다 회원 수는 적으나 월드옥타의 발전과 한인 경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07

이란 IRAN



테헤란지회 Teheran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교통의 중심지이자 동양 최대라고 일컫는 바자르를 중심으로 도매·소매업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서쪽 교외의 카라지강에 댐이 건설되어 전력이 풍부해짐에 따라 전자기기·자동차·고무 등 현대공업도 발달했다.

테헤란지회는 2017년 2월 1일 초대 전철현 지회장을 포함한 창립회원 4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공식출범했다. 2016년에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 내 한인 경제인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3명으로 회원 수가 줄기도 했다. 설립 초기부터 닦친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 전철현 지회장은 지회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대(對)이란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경제 제재가 완화된다면 이란시장 개척을 위해 한인 경제인 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지회는 이란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한인 경제인들을 월드옥타 신규회원으로 유도하고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란은 의료 관련 제품과 각종 원부자재 수요가 많아 이러한 분야의 시장개척단 상담회를 주선해나갈 계획이다.

08

쿠웨이트 KUWAIT

쿠웨이트지회 Kuwait

쿠웨이트는 아라비아반도에 자리한 왕정국가로 19세기 이래 여러 인접 국가를 상대로 한 중계무역 기지로서 발전했다. 쿠웨이트시(市)의 서쪽 교외에는 두산중공업이 건설한 세계 최대 해수증류공장이 있으며 현대건설·한국중공업 등 굴지의 건설업체가 진출해 기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한국인에게 3개월 체류비자를 발급해 본국 진출을 돕고 있다.

쿠웨이트지회는 2005년 12월 10일 설립됐으며, 초대 박정길 지회장은 쿠웨이트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교민사회의 단합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그동안 박정길 지회장은 30년간 이어진 비철과 고철의 수출입을 통해 한국의 건설·중공업의 쿠웨이트 진출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쿠웨이트 한인회장, 한글학교 교장,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기업과 교민사회의 교두보 역할에 충신했다.

향후 지회는 월드옥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지회 활성화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지회설립일
2005년 12월 10일

역대 지회장
제1대 박정길 제2대 강동진

09

카타르 QATAR

도하지회 Doha

도하는 카타르의 수도로서 상업 도시이자 무역항이다. 카타르 전체 인구의 80%가 거주하는 카타르 최대 도시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고, 정부 소재지로서 국왕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이 발달한 도하는 현재 산업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도시 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교육·방송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13년 5월 19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주길식 제2대 주승철

도하지회는 2013년 5월 19일 초대 주길식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4개국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길식 지회장의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한인들의 시장진출을 도왔으며, 각국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10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젯다지회 Jeddah

젯다는 인구 400만 명이 거주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제2의 중심 도시이자 국가 유일의 무역항이 자리해 수출입을 중심으로 한 상업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이슬람 성지 메카의 외항이기도 해 순례자 대부분이 이곳을 통과한다. 특히 1970~80년대 중동 건설 특수기 동안 수십만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했으며, 한·사우디 협력의 기반을 닦은 의미 있는 지역이다.

젯다지회는 2014년 1월 17일 설립됐으며, 초대 김덕원 지회장이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지회를 이끌어왔다. 아울러 서부 지역 한인회장과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서 높은 신망을 쌓아왔다.

그동안 지회는 월드옥타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2021년 1월부터 강대옥 지회장이 신임 지회장으로 인준돼 젯다지회를 이끌고 있다. 최근 '젯다-코리아 비즈



지회설립일
2014년 1월 17일

역대 지회장
제1~3대 김덕원 제4대 강대옥



니스쇼' 진행, 주 쟈타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MOU 체결 등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리아드지회 Riyadh

리아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서 정치와 행정, 경제의 중심지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석유 수출입, 근대적 건설기술에 의해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아랍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리아드지회는 사우디항만청에서 근무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인연을 맺은 초대 이귀동 지회장의 주도 아래 2008년 6월 10일 설립됐다. 사우디 동부 지역 한인회장, 사우디 동부 한글학교 교장 등을 역임한 이귀동 지회장은 그간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우디 내의 한국 기업과 교민들의 교두보 역할을 하며 지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리아드는 비자 발급의 어려움과 개인사업 규제 탓에 교민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고, 지회 또한 지회장 공석으로 지회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차차 지회 활성화를 도모해 사우디 내의 월드옥타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회설립일**
2008년 6월 10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이귀동 / 현재 공석

11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케이프타운지회 CapeTown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가 자리한 케이프타운은 프리토리아와 더불어 수도의 지위를 나눠 갖고 있으며, 정비된 항만·항공·철도 등이 기점을 이루는 교통의 요지이자 대표적인 관광도시이다.

케이프타운지회는 2006년 2월 1일, 7명의 경제인이 각자가 지닌 무역 아이템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을 확보하고자 결의, 설립됐다. 설립 초기 조룡제 전 상근부회장이 신규회원 모집에 앞장섰고, 현재 총 2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초대 조창원 지회장은 1989년 수산업을 시작,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어업권을 확보해 케이프타운에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 레스토랑을 처음 선보여 한식문화를 알리는 데 일조했다.

그동안 지회는 회원 간의 단합과 교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장학회 및 흑인촌 봉사활동에 두드러진 역할을 해왔다. 2010년 12월 17명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케이프타운 장학회는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교민들

 **지회설립일**
2006년 2월 1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조창원 제2대 남기철
제3대 조창원




사이에서 학업을 위해 케이프타운을 찾는 비중이 높아 장학회 설립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요하네스버그지회 Johannesburg

요하네스버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의 도시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로 손꼽히고 있으며, 금광업의 발전과 함께 인구가 급격히 팽창했다. 북반부는 교육문화 시설이 집중된 주택지구이며, 남반부는 제련·기계·다이아몬드 연마 등이 성행하는 공업지구로 이루어져 있다.

요하네스버그지회는 넬슨 만델라 정부가 탄생하던 해인 1994년 4월 1일, 초대 이증수 지회장의 주도 하에 설립됐으며, 26년간 남아공 하우텡주 관내의 한인 상공인 모임으로서 14대의 지회장을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회는 KOTRA와 연계해 회원사에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지회설립일**
1994년 4월 1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이증수 제2대 장광남
제3-4대 조룡제 제5대 장승규
제6대 박민경준 제7대 홍부기
제8대 김건호 제9대 김종익
제10대 김진의 제11대 김명환
제12대 이동민 제13대 권오국
제14대 정해권



한편 대사관, 상사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남아공 내 한인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매진했다. 또한 현지 학교 기초교육 프로그램 지원, 에이즈 예방교육 성금 모금 등 현지인들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2013년과 2019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중동 경제인대회를 통해 월드옥타 회원 간 아프리카 시장의 이해,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며 시장진출의 기회를 모색했다.

현재 요하네스버그지회는 총 37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들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교민사회의 안정을 위한 활동 등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중남미



01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 / 02 브라질 · 상파울루 / 03 칠레 · 산티아고 / 04 콜롬비아 · 보고타 / 05 도미니카 공화국 · 산토도밍고 / 06 에콰도르 · 키토 / 07 멕시코 ·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 08 파나마 · 파나마시티 / 09 파라과이 · 아순시온, 시우다드델에스테 / 10 페루 · 리마 / 11 우루과이 · 몬테비데오

01

아르헨티나 ARGENTINA



부에노스아이레스지회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무역상품의 75%는 정치·경제·교통·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무역항이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통해 교역이 이루어진다. 아르헨티나 재외동포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약 2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한인 경제인들은 주로 원단생산, 의류봉제, 도·소매업, 수입업 등 섬유 의류 관련 전후방 연관 산업에 종사하며 대체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지회는 2005년 초대 이재웅 지회장을 필두로 꾸려져 남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남미 통합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했다. 또한 매달 차세대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세미나와 견학을 통해 차세대들이 아르헨티나 주류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기울이고 있다. 대표 사례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관하는 디자인센터를 방문하고 한인 차세대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해 사무실과 디자인 작업실은 물론 전화, 인터넷 등의 인프라 지원도 약속받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지회는 이민의 역사는 짧지만 아르헨티나 지역사회에서 한국 교민들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자 한다. 더불어 아르헨티나의 한국 교민들이 성장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차세대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월드옥타 남미 지역의 미래를 선도해나가는 중심 지회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지회설립일

2005년



역대 지회장

- 제1대 이재웅
- 제2대 신상현
- 제3대 주대석
- 제4대 이영민
- 제5대 박한준

02

브라질 BRAZIL



상파울루지회 Sao Paulo

브라질은 풍부한 노동력과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공업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남미 제일의 공업국으로 발전했다. 상파울루는 남미 최대 도시이자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브라질 최대 경제도시이다. 브라질에는 현재 산업집중지인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4만 5,000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인들 중 상당수가 의류사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젊은 세대들이 무역업·기계 장비 제조·IT 및 온라인 게임업체 운영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법조계·의료계·학계 등의 전문직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상파울루지회는 초대 하운상 지회장을 중심으로 2004년 설립됐다. 이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대표자대회 등 월드옥타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시장개척요원 발굴사업 등을 통해 한국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브라질시장 개척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한 데 이어 2009년 남미 통합 차세대무역스쿨을 주최하는 등 차세대 경제인을 키우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상파울루지회는 자체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알기 쉬운 수입절차' 라는 주제로 SIDMAX Internacional에서 주최하고 재 브라질 한인회와 월드옥타 브라질 지부가 후원하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수입 관련업에 종사하거나 향후 수입업을 고려하고 있는 16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FTA 관련 포럼과 대사관 주최 한·브 경제협력회의, 숙명여대 연계 한글강좌, 교민단체와 협업한 이커머셜 포럼 등 여러 행사를 기획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상파울루지회는 주니어 및 시니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03

칠레 CHILE



산티아고지회 Santiago

칠레는 남아메리카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이는,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국가경쟁력·삶의 질·정치적 안정·경제적 자유·국가청렴도·빈곤율·세계화·인간개발 지수 등 대부분의 지표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 칠레 한인사회는 수도인 산티아고에 집중돼있고, 규모는 대략 2,500명 정도이다. 칠레 거주 동포들은 주로 산티아고 도매상가 파트로나토 지역에서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외에 제조업분야까지 발을 넓히며 칠레 사회 내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다양한 분야로 신규 이민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차세대들의 경우 변호사·교수·의사 등의 전문직으로 진출하고 있다.

산티아고지회는 2005년 11월 2일 초대 최선택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으며, 월드옥타 세계 대회에 참여하면서 현지 교민사회에 일체감을 불어넣고 있다. 2006년 7월 산티아고에서 칠레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고, 2013년 7월에는 제5기 중남미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했다. 2018년 7월에는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중남미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회 활성화와 월드옥타 네트워크 교류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지회설립일
2005년 11월 2일

 역대 지회장
제1-2대 최선택 제3-4대 서화영
제5-6대 한봉래 제7-8대 남도우

04

콜롬비아 COLOMBIA



보고타지회 Bogota

콜롬비아 안데스산맥 기슭의 고원지대에 자리한 보고타는 배후 도시를 포함해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식민시대부터 남아메리카 문화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남아메리카의 아테네’라고도 불렸다. 자동차조립·면직·모직·유리·시멘트 등의 공업이 활발하며, 부근의 비옥한 고원지대에서는 곡물·채소·과실 등의 농산물과 돌소금·석탄·철광 등의 지하자원이 생산된다. 최근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로 주춤한 상태이지만 정부 주도 하에 관광산업이 육성되고 있다. 콜롬비아에는 남미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많지 않은 만큼 향후 다양한 사업 기회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고타지회는 한인 자녀들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8년 1월 18일 초대 박원규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현재까지도 지회를 이끌어오고 있는 박원규 지회장은 다년간의 사업 경험과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월드옥타 지회를 설립하여 후배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모국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교포 기업인들의 탄생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보고타지회는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더 많은 교육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무역스쿨 진행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08년 1월 18일

 역대 지회장
제1대 박원규

05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



산토도밍고지회 Santo Domingo

도미니카공화국은 쿠바와 함께 중남미를 대표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경제·외교 면에서 미국의존도가 높고,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들의 경제 통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중남미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치안과 경제가 안정적일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이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췄다. 연중 온화한 아열대 기후와 자연환경으로 연간 400만 명의 외국관광객이 도미니카를 찾고 있으며, 관광을 비롯해 통신·건축·기계류·일반상품 등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중남미 국가들에 전자제품·자동차 등의 교역을 통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온 것도 우리 기업들의 상품과 기술이 현지에 진출하기에 유리한 배경이 돼주고 있다. 산토도밍고는 도미니카 제1의 도시로, 많은 한국인 교민이 이곳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교민 대부분은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의 관계자와 선교사 가족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산토도밍고지회는 2005년 11월 초대 장인택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돼 현재는 지회장이 공식인 상태이다. 추후 지회 활성화를 통해 교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고 월드옥타의 다양한 사업들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지회설립일
2005년 11월

 역대 지회장
제1대 장인택 / 현재 공석

06

에콰도르 ECUADOR



키토지회 Quito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는 1979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도시이다. 1년 내내 기온이 온화해 미국의 은퇴자들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국가 1위이기도 하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곳을 통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남미를 겨냥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자국의 산업 시설이 부족해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높은 수입의존도는 한국의 기업들에 호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에콰도르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2017년 12월 28일 초대 오창호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된 키토지회는, 월드옥타의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모국의 중소기업들이 남미 수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특히 설립부터 지금까지 키토지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 오창호 지회장은 벤처기업협회·중소

 지회설립일
2017년 12월 28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오창호

기업진흥공단·고용노동부·광주테크노파크 등 한국의 기관들과 모국 중소기업을 위한 활발한 협력사업을 창출하고 있다. 키토지회는 앞으로도 한국의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들을 에콰도르 시장에 소개하면서 수출 지원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07

멕시코 MEXICO




멕시코시티지회 Mexico City

멕시코는 한국인들이 최초로 이주한 중남미 국가이다.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경쟁력에 더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멕시코 정부가 외국인 이민 장려정책을 펼치면서 한국인 이민자 수도 더욱 증가했다. 멕시코 교민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생활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지회는 2005년 초대 김재현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설립 첫 해 멕시코 이민 100주년 기념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현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멕시코시티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2010년 9월에는 멕시코 정부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하고,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부상했다. 현재 멕시코시티지회는 모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단체로의 성장을 목표로 145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회를 이끌고 있는 이종현 지회장은 차세대무역스쿨 제1회 수료생으로, 차세대 사업가가 차세대 대표, 차세대 위원장, 지회 부회장을 맡은 후 지회장이 된 첫 사례가 됐다.

 지회설립일
2005년

 역대 지회장
제1-2대 김재현 제3대 문석환
제4대 오병문 제5-6대 박홍국
제7대 장원 제8대 이종현



지회 설립 초기부터 세계 각국의 월드옥타 지회와 연계해 수출 판로를 공유하고 시장개척단 활동을 펼쳤으며 상품전시회를 개최했다. 특히 멕시코시티지회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마케터가 중심이 돼 국내 중소기업들과 전략적 관계를 다져나가는 한편, 해외지사화사업, 수출친구맺기,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업들의 멕시코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 차세대 리더 조직을 신설해 2011년 제1기 차세대무역스쿨을 열고 무역실무와 창업·시장개척·인사와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매해 차세대무역스쿨 현지교육을 진행했고, 멕시코시티뿐 아니라 인근 도시의 차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차세대무역스쿨로 확대 실시했다. 2018년부터는 멕시코 몬테레이지회와 콜롬비아 보고타지회의 차세대 회원들까지 통합한 대륙별 차세대무역스쿨 체제로 차세대들에게 무역실무와 창업의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자체사업으로는 2008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경제 세미나를 개최해 멕시코 현지에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경제포럼을 열어 회원들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지회는 봉사단체로도 교민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글학교 건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2만 달러의 기부와 함께 지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금을 전개, 멕시코에 기부문화를 전파하며 총 185만 달러를 모금해 2010년부터 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아울러 멕시코시티 한글 학교에 장학금 기부 및 이민법·세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를 초대해 무역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몬테레이지회 Monterrey

몬테레이는 멕시코 제3의 도시이며 국제공항이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미국과 연결한 몬테레이의 입지적 특성 때문에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객도 많이 찾는다. 몬테레이는 멕시코 주요 기업들의 본사와 지사가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다국적 기업들도 입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아자동차가 2015년 이 지역에 공장을



 지회설립일
2017년 8월 22일

 역대 지회장
제1대 박주일 제2대 윤중섭

설립하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고, 100여 명에 불과하던 거주 한인도 4,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몬테레이지회는 2017년 8월 22일 초대 박주일 지회장을 중심으로 설립돼 모국기업의 몬테레이 진출을 지원하면서 멕시코 북부 지역의 모국상품 판매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몬테레이지회에는 상공인·회계사·교수 등 10여 명의 한인 경제인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08

파나마 PANAMA



파나마시티지회 Panama City

파나마는 동쪽으로 콜롬비아, 서쪽으로 코스타리카와 국경을 접하고, 남쪽으로 태평양, 북쪽으로 카리브해에 면한다. 이런 입지적 특징으로 파나마 경제는 커피를 비롯한 농산물 교역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계 무역지로서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면서 기후 및 자연 조건을 활용해 관광국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수도인 파나마시티는 은행·통상·관광업 등 서비스에 기반을 둔 사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파나마시티를 중심으로 파나마에 거주하는 한인 은 약 250명이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파나마는 대사관·상사 등 주재원들과 교민들의 수가 거의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기업들로는 삼성·LG의 현지 법인 등 여러 한국 상사들의 중남미 판매 본부가 파나마에 존재한다.

파나마시티지회는 1997년 설립됐으며, 설립 이후 교민들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역량을 집중해 왔다. 현재 지회장은 공석이지만, 파나마에서 한인의 위상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회 활성화를 통해 파나마에 월드옥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09

파라과이 PARAGUAY



아순시온지회 Asuncion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런 입지적 특징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파라과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순시온에는 현재 재외 동포 약 4,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인 경제인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차세대들은 교수·의사·변호사·회계사·건축기사 등 각계에서 주류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지회는 남미 최초 월드옥타 지회로 1997년 12월 29일 초대 홍성우 지회장을

 지회설립일
1997년

 역대 지회장
제1대 정찬대 / 현재 공석

 지회설립일
1997년 12월 29일

 역대 지회장
제1대 홍성우 제2대 전익택
제3대 이일현 제4대 김태훈
제5-6대 신정우 제7대 임월빈
제8대 신정우 제9-11대 장승일
제12-13대 최재홍



필두로 설립된 이후, 남미 타 국가들의 지회 설립에 모범이 됐다. 1998년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사무소를 개소했다.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 현지 EXPO 한국관 운영을 주관하는 등 모국기업들의 수출 지원 역할을 담당했다. 2010년에는 파라과이 차세대위원회를 결성하고, 2011년과 2017년 남미 통합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하는 등 차세대 인재 육성에 힘쓰기 시작했다. 이외에 주력사업으로 월드옥타 해외지사화사업을 수행해왔다. 아순시온지회는 명예회장 1인, 지회장 1인, 부회장 1인, 고문 5인 등 20명 안팎의 정회원이 활동 중이고, 20여 명의 차세대회원들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도약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시우다드델에스테지회 Ciudad Del Este

파라과이 제2의 도시로 불리는 시우다드델에스테는 세계적인 규모의 수력발전소인 이타이푸댐 건설과 함께 도시개발을 가속화했다.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교역량도 늘어나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월드옥타 지회가 소재한 시우다드델에스테에는 이과수목포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 위한 수백 개의 쇼핑센터가 모여있기도 하다. 한국과 파라과이의 무역과 투자는 아직 그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파라과이 정부가 자국 영토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우리 기업들과 교민이 다수 시우다드델에스테 등에 진출해있다. 한인 경제인들이 집중하는 업종은 의류·화장품·잡화·전자제품 등의 무역이다.

시우다드델에스테지회는 한국의 기업들과 파라과이 간 교역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2014년

 지회설립일
2014년 2월 4일

 역대 지회장
제1대 명세봉



2월 4일 명세봉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이후 파라과이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모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한국 제품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비주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면서 교민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차세대무역스쿨에도 역점을 두고 지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월드옥타의 다양한 행사와 사업에 꾸준히 참여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0

페루 PERU



리마지회 Lima

리마는 페루의 수도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산업·문화·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메리카의 금융허브로 부각되며 도심에는 여러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이 모여있다. 한국과 페루는 2011년 양국 간 FTA 발효로 교역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국기업들의 페루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리마지회는 2018년 3월 26일 초대 박영철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돼 차세대를 포함한 지회장 1인, 부회장 1인, 집행부 2인 등 약 12명의 정회원이 활동 중이다. 리마지회는 대한민국과 페루 및 기타 해외 지역 간 무역과 통상진흥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류와 공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계경제인대회와 세계대표자대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해외지사화사업 등의 참여를 통해 모국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남미 통합스쿨 및 대표자대회 칠레 참가, 2019년 남미 통합스쿨 파라과이 시우다드델에스테 참가 등 차세대 육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리마지회의 향후 가장 큰 목표는 정회원과 차세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차세대의 젊은 혈기와 기성세대의 경험이 상생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대 간 다리가 돼주는 것이다.

 지회설립일
2018년 3월 26일

 역대 지회장
제1대 박영철

11

우루과이 URUGUAY



몬테비데오지회 Monte Video

남아메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우루과이는 전통적으로 세계적인 축산국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낮은 구릉과 초원지대로 이루어져 목초지에서 양과 소를 비롯한 많은 가축들이 방목되며, 축산품이 전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공업시설은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 주변에 분포하고 있고, 농산물 가공업·신발·석유산업 등이 주를 이룬다. 몬테비데오는 우루과이의 정치·금융·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상업시설이 집중돼 있다.

몬테비데오지회는 2004년 4월 초대 김덕규 지회장의 주도로 설립된 이후 지회의 초석을 닦기 위한 노력을 주로 펼쳤다. 2009년을 기점으로 월드옥타 해외지사화사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수행하고 차세대 육성을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시동을 걸고 있다. 현재 몬테비데오지회원은 지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차세대 위원 6명 등 총 12명이 활동 중이다.



지회설립일
2004년 4월



역대 지회장
제1대 김덕규 제2대 이선원
제3대 이동성



동남아시아



- 01 캄보디아 · 프놈펜 / 02 홍콩 · 홍콩 / 03 라오스 · 비엔티엔 / 04 마카오 · 마카오 / 05 필리핀 · 마닐라 / 06 대만 · 타이베이
- 07 태국 · 방콕 / 08 미국 · 괌 / 09 베트남 · 하노이, 호치민

01

캄보디아 CAMBODIA



프놈펜지회 Phnom Penh

프놈펜은 캄보디아 수도로서 프랑스인·중국인·베트남인 등이 어울려 살며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프놈펜지회는 2017년 11월 29일 초대 이상범 지회장을 중심으로 발대인을 구축하여 출범했다. 이상범 지회장은 캄보디아 한인경제인연합회 설립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회장을 역임하며 교민사회의 두터운 신망을 쌓아왔다.

지회는 설립 이후 회원 간 교류는 물론 현지 경제인 연합체, 교민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상호 간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활동 범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20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회는 10여 명의 핵심 차세대회원들의 활약 속에 차세대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투명하고 전문적인 지사화사업을 위해 14명의 통상·분야별 멘토를 별도로 선정하여 글로벌 마케터와 협업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진행한 제3차 지사화사업에서 현지 바이어를 연계하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프놈펜지회는 회원 및 현지 교민 간 친목은 물론, 상호 간 사업 협업을 증대시키는 노력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월별 정기모임, 소모임 등 여러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17년 11월 29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이상범 제2대 장영도



지회설립일

2006년 9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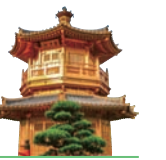


역대 지회장

제1대 이병욱 제2대 신홍우
제3대 김운영 제4~5대 오상환
제6대 강기석 제7대 나정주
제8대 김준희

02

홍콩 HONG KONG



홍콩지회 Hong Kong

홍콩은 중국 대륙 남동부에 있는 특별행정구로서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 정보 유통, 고효율의 조립 가공, 서비스산업 등으로 홍콩 경제를 견인해왔다. 특히 한국과는 삼각무역의 중계지로서 한국의 수출확대 정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에 한국총영사관이 설치되었다.

홍콩지회는 2006년 9월 28일 설립됐으며, 설립 전 초대 이병욱 지회장이 월드옥타 본부와 교류를 시작하며 산하 조직으로 홍콩지회를 구성하고 그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9년 5월 제2대 신홍우 지회장이 조직 개편과 정관 제정에 나서면서 지회 활성화가 본격화됐다.

홍콩 한인상공회의 산하 조직으로 등록된 홍콩지회는 현재 40여 명의 정회원이 활동하며 월드옥타에 대한 홍보 및 옥타사업을 널리 알리며 신규회원 모집, 지회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지회 활성화가 두드러지기 시작해 신규회원 증가는 물론, 해외지사회사업 및 수출새싹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지회는 차세대회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시행할 계획이다.



03

라오스 LAOS



비엔티엔지회 Vientiane

비엔티엔은 라오스의 수도로서 정치와 경제 중심지이다. 옛 라오족 왕조의 고도로서 왕궁과 파고다 등이 많이 남아있다. 1990년대에 라오스·태국 간 다리가 건설돼 양국 간 교통이 편리해졌다.

비엔티엔지회는 2012년 5월 17일 라오스 정부 주요 관계자·대사관·한인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정식설립됐다. 차세대무역스쿨에 참여하며 전 세계 회원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4년과 2019년 한국상품 전시회를 개최해 라오스 바이어와의 연결을



주선하는 등 라오스 현지에 한국상품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KOTRA 간담회를 개최해 라오스 경제동향을 전달하고, 지자체 행사에도 참여해 후원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비엔티엔지회를 구성하고 있는 19명의 회원들은 오랜 기간 라오스에 거주해 가족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차세대회원으로서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지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04

마카오 MACAU



마카오지회 Macau


마카오는 1999년 12월 중국의 특별구 형태로 반환됐다. 이에 따라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행정특별자치구'이다.



 지회설립일
2018년 6월 2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정중현

 지회설립일
1991년 10월 5일

 역대 지회장
제1대 한덕우 제2대 서병현
제3대 배일수 제4대 김영기
제5대 강창익 제6대 이규초
제7대 김종팔 제8대 박완섭

마카오지회는 2018년 6월 2일 창립회원 10명과 내외빈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정식출범했다.

현재 마카오지회는 10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초대 정중현 지회장의 헌신 속에 월드옥타의 각종 대회에 참가해 지회 및 회원 간 긴밀한 유대와 비즈니스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지 교민사회에 월드옥타 알리미 역할과 신규회원 모집에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홍콩과 심천·광주 등의 지회와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회 역할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마카오지회는 홍콩·중국 광둥성 지역의 수출입업무를 돕고 여러 업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05

필리핀 PHILIPPINES



마닐라지회 Manila

마닐라는 필리핀 루손 섬 서남 해안에 있는 도시로서 1975년 마닐라-케손 등 수도권 4개 시와 인접 지역을 통합한 대(大)마닐라시가 발족하여 필리핀의 수도가 됐다.

마닐라지회는 1991년 10월 5일 설립된 필리핀 최초의 한인 경제단체로서 오랜 경륜의 동포 무역인 중심으로 친목,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조직됐다.

1998년 한국·필리핀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한국상품전이 개최됐고, 2003년부터는 부천시, 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참여하는 등 모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한국 우수상품 전시회(KOREA PRODUCT FESTIVAL)를 지속 개최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상품 및 문화를 소개해 현지인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한류 및 한국을 이해시키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회는 KOTRA, 한인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경제·무역 관련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다. 2007년에는 부천시와 마닐라 발렌수엘라시(市)가 자매결연을 맺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양국 간 관심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2001년에는 옥타 장학회를 창설해 매년 현지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학용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ladies charity 소속 불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그리고 필리핀국립대학에 설립된 한국학회를 지원, 장학금 수혜 및 행사 지원을 통해 지한파 인사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2005년부터 차세대무역스쿨에 참여한 지회는 차세대 양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각계 주요 인사를 초청해 회원들의 교양 증진과 회원 간 화합을 다지고 있다. 마닐라지회는 앞으로 회원 간 글로벌화와 네트워킹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교양 강좌 등을 심화해나갈 예정이다.

06

대만 TAIWAN



타이베이지회 Taipei

타이베이는 대만의 수도로 장제스 정부의 중국 본토 철수 이후 수도로서 역할을 맡게 됐다. 타이베이 교외에는 방직공장·제분공장·자전거공장 등 공업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타이베이지회는 설립 전 현지 KOTRA 무역관장과 대표부 상무관 등 19명이 모여 대만 한인 경제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방안을 먼저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회설립일
2008년 1월 23일

 역대 지회장

- 제1~2대 황희재 제3대 최종택
- 제4대 전병덕 제5대 조연빈
- 제6대 전병덕 제7대 김규일

2008년 1월 23일 주한 대만대표부 대사 등을 포함 40여 명의 한인 경제인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식을 갖고 정식출범했다.

초대 지회장에 선출된 황희재 지회장은 1986년 단신으로 대만으로 건너가 무역업에 뛰어들었으며, 20년만에 300억 원대의 연매출을 올린 유허국제유한공사를 성공적으로 일궈냈다. 또한 대만한인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지회장을 맡는 등 개인 비즈니스와 함께 민간외교 사절로 사회봉사활동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타이베이지회가 한인 경제인들이 뭉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타이베이지회는 매년 세계대표자대회·수출상담회·각 대륙별 지역활성화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차세대무역스쿨 사업에도 적극 나서 글로벌 차세대 인재양성에 일조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1월 현지 KOTRA 센터장을 초청, 신년 교례회를 개최해 새해 세계시장과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자매 지회인 중국 연길 무역박람회에도 꾸준히 참여해 중국 내 인적 자원에 대한 교류 및 정보교환을 이어오고 있다.

07

태국 THAILAND



방콕지회 Bangkok

태국의 한인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징용됐던 사람들에 의해 시작됐다. 이들은 1960년대 초반 ‘야자수회’를 조직했는데 이것이 교민사회의 시발점이다.

방콕지회는 2009년 4월 16일 한·태 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초대 안중국 지회장과 7명의 발기인이 주도하여 설립됐다. 월드옥타의 108번째로 탄생한 방콕지회는 2012년 한·태 경제매칭대회를 개최했고, 2014년부터는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해 인재양성에 매진했다. 이후 홈페이지 구축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회원 간 소통과 지회 홍보에 적극 나섰고, 2018년 태국사단법인에 정식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을 후원하기 위한 옥타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이에 힘입어 방콕지회 단독으로 개최한 차세대무역스쿨을 통해 4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0년 11월 기준 90여 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과 태국 및 기타 해외 지역 간의 무역 및 통상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지회는 내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세안 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을 통해 차세대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그리고 태국을 중심으로 동서남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08

미국 U.S.A.

괌지회 Guam

남태평양 상에 위치한 괌은 마이크로네시안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섬으로서 미국령이며 주도는 하갓나(Hagatna)이다. 괌 경제는 주로 관광산업과 연방재정보조, 무역 및 서비스업 등이다. 1970년 2월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괌 출장소가 개설된 이후 1990년 10월부터는 한국 여행객이 무사증으로 괌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정부와 괌 정부 간의 우호 관계 속에 정부 요인 및 군 관계 주요 인사들의 긴밀한 유대를 이어오고 있다.

괌지회는 1985년 5월 25일 초대 지회장인 이호선 지회장의 주도 하에 설립됐다. 초대 이호선 지회장은 현지 교민사회뿐 아니라 한국의 정계·재계에 두루 인맥을 갖춘 지도자로서 초기 지회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95년과 2002년에 지역경제인 대상 무역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 괌지회는 회원 간 단합을 위해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괌 대학교 장학금 지원, 한인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및 성금 기부 등 한인사회와 현지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설립 이후 줄곧 지회 활성화에 노력해 온 괌지회는 2011년 차세대무역스쿨을 유치했고, 이를



지회설립일
1985년 5월 25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이호선 제2대 권고석우
제3대 서정민 제4대 이종원

지회설립일
2006년 3월 17일

역대 지회장
제1대 김진배 제2대 최봉식
제3대 전철우 제4대 김경록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 지회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또한 월드 옥타 대회와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괌지회가 환태평양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09

베트남 VIETNAM



하노이지회 Hanoi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로서 정치·문화의 중심지이자 금융·부동산·은행업 등이 성행하는 베트남 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도시이다.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로서 주변 도시들과의 연결성이 높아 무역의 핵심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다. 1992년 12월 정식 수교를 맺은 한국과 베트남은 꾸준히 양국 간 무역교역량을 늘려나갔으며, 2008년에는 총 98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현재 하노이에는 5,000여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하노이지회는 2006년 3월 17일 초대 김진배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으며, 2019년 지회 활성화가 본격화됐다. 현재 지회를 이끄는 김경록 지회장은 하노이의 한인 경제인들이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으며, 교외 활동 및 교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한인들의 입지를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호치민지회 Ho Chi Minh

호치민은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이자 가장 큰 도시로서 1954년 분단 이후 남베트남의 수도가 됐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캄보디아와도 인접해 있어 코친차이나의 정치·문화·교통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푸른 가로수가 늘어선 아름다운 풍경으로 '동양의 파리'라 일컬어지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기업들이 진출해있고, 2001년에는 베트남 최초의 증권 거래소가 개장했다.

호치민지회는 1998년 설립한 이후 지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다, 2013년 재창립을 위한 발전대회를 개최한 후 23명의 정회원으로 재출범했다. 그간 내실 있는 회원 관리를 통해 활동이 미진한 회원은 퇴출하고 새로운 회원을 증원하는 등 양질의 회원 확보에 노력했다.

2017년 동남아 통합무역스쿨과 아세아 대표자대회를 개최해 호치민 한인사회에 지회 위상을 각인시켰고, 2019년 동남아 지회장대회를 개최해 지회 간 교류에 크게 이바지했다. 2020년 호치민과 하노이를 통합한 통합무역스쿨과 지회 활성화대회는 차세대 무역인 양성과 지회 활성화가 제고되는 계기가 됐다.

호치민지회는 글로벌 마케터를 통한 지사화사업, 새싹기업 지원사업, 수출상담회 등 월드옥타 본부와 연계된 사업을 수행해 모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지 한국학교에 재능기부 등 교민사회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회설립일
1998년



역대 지회장
제1대 이순홍 제2-3대 손영일
제4대 김태곤 제5대 김진섭



서남아시아



01 인도 • 벵갈루루, 첸나이, 뭄바이, 뉴델리 / 02 인도네시아 • 발리, 자카르타 / 03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 04 미얀마 • 양곤 / 05 네팔 • 카트만두 / 06 싱가포르 • 싱가포르 / 07 스리랑카 • 콜롬보

01

인도 INDIA



벵갈루루지회 Bengaluru

벵갈루루는 데칸고원 남부산지의 해발고도 950m 지점에 있는 도시로서, 오랫동안 옛 마이소르 왕국의 수도로 번영했다. 시가지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구분되며 남쪽 구역에는 관공서와 상업지역 등이, 북쪽 구역에는 아름다운 왕궁과 인도과학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다.

벵갈루루지회는 2019년 2월 1일 초대 정현경 지회장을 필두로 설립됐다. 현재 지회를 이끌고 있는 정현경 지회장은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SBA 해외 민간무역네트워크, 광주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들과 협업해왔으며, 인도시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을 향한 열정적인 봉사와 헌신을 인정받아 초대 지회장으로 추대됐다.

벵갈루루에는 지역 사정상 사업을 하는 교민이 적어 지회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 하지만 향후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시아 교민 경제의 리더가 되고 모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많은 기업인을 신규회원으로 모집하여 월드옥타 본부의 다양한 사업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지회설립일
2019년 2월 1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정현경

첸나이 지회 Chennai

첸나이는 인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벵골만에 면한 항구도시이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 세이트조지 성채를 중심으로 해안의 사구를 따라 시가지가 발달했고, 남서쪽에 부도심이자 상업지구인 마운트로드가 형성되어 있다.

첸나이 지회는 2005년 12월 22일 남인도 4개 주, 1개 자치령을 관할하는 지회로서 6명의 발기인이 지회 설립을 결의했고, 창립총회를 열어 초대 심상만 지회장을 선출하며 공식 출범했다. 이후 지회는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건을 수렴하고 2006년 1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제정했다.

인도에서 한국 기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보여준 심상만 지회장은 2007년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첸나이 지회의 위상을 높였다.

향후 지회는 교민사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지인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교민들의 사업이 첸나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매진할 것이다.



지회설립일
2005년 12월 22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심상만 / 현재 공석



지회설립일
2008년 4월



역대 지회장
제1대 박정희

뭄바이지회 Mumbai

뭄바이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있는 인도 최대의 도시로서 국제무역항과 국제공항이 있다. 인도의 상업중심지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산업의 본고장이다. 뭄바이지회는 2008년 4월 박정희 지회장 단독으로 설립됐다. 뭄바이 지역 교민은 250여 명 정도이며 대다수가 대기업 주재원이기에 신규회원 모집에 한계가 있으나, 1인 지회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박정희 지회장은 현재 여행·방송 코디네이션·비즈니스 상담을 하는 Hana Travels LLP를 운영 중이다.



뉴델리지회 New Delhi

뉴델리는 1911년 인도의 새 수도로 정해진 뒤 20년간에 걸쳐 완성된 계획도시로서 넓은 도로망이 펼쳐진 정치의 중심지이다. 뉴델리지회는 2017년 2월 6일 설립됐으며, 5월 18일에 창립회원 8명이 내외 귀빈을 모시고 창립기념식으로 정식출범했다.

초대 노영진 지회장과 제2대 김원준 지회장을 거쳐서 2021년 2월부터 현재의 제3대 임태환 지회장이 맡아 여러 임원들과 지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뉴델리지회는 뉴델리 한인 경제인들에게 월드옥타를 소개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



하여 회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힘써왔다. 하지만 2020년부터 세계적인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해 인도 역시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으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선다면 향후 인도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하면서 차세대 인재육성에 매진하는 한편, 인도 현지 교민사회에도 월드옥타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인도 뉴델리 비즈니스 센터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27일에는 예비 차세대회원들을 모아 월드옥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현재 뉴델리지회는 14명의 정회원 및 10명의 차세대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09년 포괄적 경제동반협정(CEPA)을 체결해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기에 이를 잘 활용하여 인도에서 지역경제인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도의 젊은 층들이 많이 귀국했으나, 머지않아 기회의 땅 인도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02

인도네시아 INDONESIA



발리지회 Bali

발리섬은 발리해를 사이에 두고 자바섬의 동부와 면하고 있다. 힌두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섬으로서 약 4,600개의 힌두사원이 산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아름다운 섬이다. 현재 약 277만 8,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발리지회는 초대 장병록 지회장이 중심이 되어 2013년 3월 31일 설립됐다. 장병록 지회장은 1991년 인도네시아에 목재·가구 수출입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과의 무역을 주도해왔다. 그리고 비옥한 평야를 토대로 한 논농사와 관광업·호텔업 등을 포함,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13년 3월 31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장병록 제2대 장유진

지회설립일
2007년 2월 1일

역대 지회장
제1대 김우재 제2대 최동욱
제3대 강희중 제4대 배응식
제5대 김중헌

자카르타지회 Jakarta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안에 있는 수도로서,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교민들 상당수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대규모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에 이바지하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자카르타지회는 2007년에 2월 1일 창립회원 50명을 포함 내외빈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열고 정식출범했다. 월드옥타 제17대 회장을 지낸 김우재 명예회장이 초대 지회장으로, 회원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지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해 활동했다. 지회 회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교민사회에서의 월드옥타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했으며, 이를 토대로 2008년 자카르타 차세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특히 지회는 지난 12년 동안 차세대무역스쿨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약 6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차세대 발굴에 주력했다. 매년 정기적인 사회봉사활동과 한국문화 전파에도 힘쓴 지회는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를, 인도네시아 나환자 병원인 성시타닐라병원에 매년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현지에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지회 회원 다수는 인도네시아 한인단체 및 기관(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코참 등)에서 수장으로 활동하고, 금융·전자·봉제 등 다양한 사업에 종사하며 한인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및 아세안 대표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03

말레이시아 MALAYSIA



쿠알라룸푸르지회 Kuala Lumpur

아시아의 유럽이라 일컬어지는 말레이시아는 개발성장 선도국가로서 아세안 진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회가 위치한 쿠알라룸푸르는 수도로서 왕실과 의회가 자리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지회는 2004년 4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한상운영위원회 모임에서 서진형 회장, 정진철 회장, 조병태 회장, 이영현 회장, 홍명기 회장 등이 지회 설립을 추진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20일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유력 경제인 53명이 모여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립총회를 개최, 월드옥타 제16대 회장을 지낸 권병하 명예회장을 초대 지회장으로 추대하면서 지회가 공식출범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공한 한인 기업인으로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에 일조한 권병하 지회장은 현지 지역사회에도 크게 이바지해 외국인 최초로 말레이시아 국왕에게 백작 작위를 받기도 했다. 2006년 3월 지회는 월드옥타 역사상 최초로 지역 활성화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월드옥타 지역의 활성화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매년 초 꾸준히 동남아 활성화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지회는 11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월드옥타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04년 6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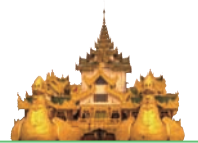


역대 지회장

- 제1대 권병하 제2대 이순구
- 제3대 허진학 제4대 전광재
- 제5대 제윤호

04

미얀마 MYANMAR



양곤지회 Yangon

양곤은 미얀마 최대의 도시로서 정치·경제 활동의 중심지이다. 2005년 11월까지 미얀마의 공식 수도였으나 2006년 밀림지대인 핀마나(Pyinmana)로 옮겼다. 한반도의 약 3.5배에 이르는



지회설립일

2010년 9월 10일



역대 지회장

- 제1대 모영주 제2대 김중환



면적을 가진 미얀마는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한국과 FTA를 체결했다. 양곤지회는 2010년 9월 10일, 창립회원 10명을 포함해 내외빈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기념식을 열고 공식출범했다. 2018년 1월 서남아 지회장회의를 개최해 지회 간 회원 교류와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동남아 홈쇼핑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한국상품을 양곤에 널리 알리는 한편 모국 중소기업의 수출 도모에 앞장섰다. 앞으로도 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모국 상품을 알리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곤지회는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규회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현재 15명의 정회원과 5명의 차세대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05

네팔 NEPAL



카트만두지회 Kathmandu

카트만두는 네팔의 수도이자 인구 320만 명이 거주하는 가장 큰 도시이다. 시가지에는 행정청을 비롯해 옛 왕궁, 불교·힌두교 사찰이 많으며, 이 가운데 5층 왕실 성묘 탈레주와 도시 명칭에 기원이 된 목조 사찰 카트만두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로 유명하다. 특히 히말라야 관광의 입구로서 전 세계 산악인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카트만두지회는 네팔 대사관의 적극적인 추천에 힘입어 2016년 12월 14일 설립됐다. 네팔은



지회설립일

2016년 12월 14일



역대 지회장

- 제1대 김영인

최저개발국으로 아직 정비되지 않은 사업들이 산재해 한국 무역인들에게 좋은 투자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지회 설립이 이루어졌다.

초대 지회장으로 부임해 현재까지 지회를 이끄는 김영인 지회장은 네팔의 저임금과 미디어 인프라를 활용해 영화 특수효과 사업을 하고 있으며, 네팔 현지의 한인들과 현지인들에게 일자리 지원 및 예술적·기술적 발전을 제공하고 있다.

06

싱가포르 SINGAPORE



싱가포르지회 Singapore

싱가포르는 아시아 동남부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있는 도시국가이다. 1963년 싱가포르 한인회가 발족됐으며, 초창기 한인들은 주로 목재 수·출입사업을 하며 정착하기 시작해 이후 무역과 관광업에 종사,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싱가포르지회는 월드옥타 회장을 지낸 박기출 명예회장이 2008년 설립발기인으로서 설립을 주도한 가운데 정식출범했다.

초대 박기출 지회장은 오랜 해외주재원 생활을 접고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뛰어들어 연 매출액 1,000억 원의 기업을 일궈냈으며, 외식사업에도 착수해 동남아와 중동에 한국의 먹을거리를 전파했다.

지회설립일

2008년 4월 최초 설립
2020년 5월 26일 재창립

역대 지회장

제1대 박기출	제2대 김철수
제3-4대 구혜영	제5-6대 이중구
제7대 박방수	제8대 김중윤



지회 설립 1년 뒤인 2009년 40명의 정회원과 6명의 차세대회원이 지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명 이상의 차세대 인재를 배출했다.

한국·싱가포르 교류 역사상 최고 규모의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개최했고, 월드옥타 40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 상집위원(구혜영 부회장)’이 서남아시아 대륙부회장(2019~2021년)에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다.

설립 이후 싱가포르지회는 월드옥타의 홍보와 봉사활동에 매진했으며, 지회의 역할 확장을 위해 2020년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창립’을 선언했다. 싱가포르 지회는 글로벌 마케팅 및 각 정부 기관들의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에 동참하고 그간 지회에 축적된 에너지와 경험을 되살려 명예로운 지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07

스리랑카 SRI LANKA



콜롬보지회 Colombo

콜롬보는 실론섬의 남서해안 켈라니강 하구에 있는 항만도시로서 스리랑카 상업무역의 중심지이자 행정수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양을 횡단하는 선박의 기항지로도 유명하다.

‘동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섬나라 스리랑카에는 1977년 수교 이후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1979년에 한인회가, 1994년에는 ‘재스리랑카 한국경제인협의회’가 출범했다. 특히 KOTRA와 주재국 투자청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비즈니스에 유리하다.

콜롬보지회는 2006년 기존에 활동하던 한국경제인협의회가 월드옥타 지회로 가입되면서 두 단체는 한 몸이 됐고 활동영역은 더욱 확대됐다. 월드옥타가 주관하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차세대무역스쿨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경제인협의회가 주관하는 대내외적인 모든 행사를 함께하고 있다. 1996년 스리랑카에 정착한 제2대 정연국 지회장은 스리랑카 한인회 운영

지회설립일

2006년

역대 지회장

제1대 엄경호	제2대 정연국
제3대 오지철	



위원과 한국경제인협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지회 회원들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무역·섬유·유통업 등에 종사하면서 현지화를 위해 스리랑카맹인협회의 시각장애인과 군·경찰 태권도협회 지원, 공무원 자녀 대상 장학금 지급, 빈민촌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 한인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해 동포 2세들의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인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지회는 양국 간 친선우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각 부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자선사업과 주재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초청 환대를 받는 등 가장 주목받는 외국인단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중국



01 중국 · 북경, 장춘, 창사, 대련, 단둥, 무순, 광저우, 하얼빈, 후룬베이얼, 길림, 남경, 청도, 삼하, 상해, 심양, 심천, 소주, 천진, 통화, 위해, 연길, 연태, 이우

북경지회 Beij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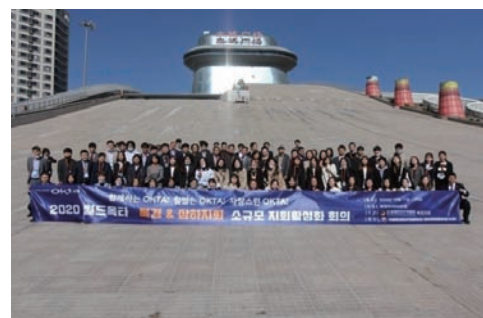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발돋움했다. 이에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 이주한 한국 교민 수도 크게 증가했다. 북경이라는 지명은 '북쪽에 있는 수도'라는 의미로, 원나라 때 계획 도시로 건설되어 많은 역사 유적이 남아있다.

북경지회는 1990년대 초부터 월드옥타 본부 활동에 참여했고, 1998년 4월 지회 설립을 인정받아 중국 지역 최초의 지회로서 정식출범했다. 현재는 150여 명의 정회원과 차세대무역스쿨을 통해 양성한 530여 명의 차세대회원이 활동하는 지회로 성장했다.

초대 김철 지회장은 중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고려학회 창시자로서 1990년대 초부터 출국이 비교적 용이한 일부 기업인들을 대동하여 월드옥타 활동을 시작했으며, 중국 지역에 월드옥타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이다.

북경지회는 천진지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지역경제인대회, 단독주관 대회 등 중국에서 유일하게 2차례에 걸친 지역경제인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특히 기존 대회와는 달리 20여 개 모국 기업을 초청하고 100여 개 현지 바이어 기업과의 매칭 및 협상을 현실화해 월드옥타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지회는 매년 개최하는 총회·송년회·회원교류회 등을 통해 회원 간 교류를 넓히고 지역 사회 발전에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차세대무역스쿨은 물론 차세대 리더스 컨퍼런스, 차세대 대표자대회 등을 주관하며 차세대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지회설립일
1998년 4월

역대 지회장

- 제1대 김철 제2대 이광석
- 제3대 정경호 제4-5대 김영국
- 제6대 김길송 제7대 이석찬
- 제8대 홍해

장춘지회 Changchun

장춘은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에 있는 부성급시이다. 지린성의 성도이면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 장춘제일자동차 제조공장과 장춘영화제작소가 있어 자동차공업과 영화 제작의 거점도시이기도 하다. 최초의 중국산 자동차가 바로 이곳에서 생산됐다.

장춘지회는 2006년 7월 처음 설립됐다가 2013년 5월 박승일 지회장을 필두로 재창립됐다. 현재는 하태준 지회장이 지회를 이끌고 있다.

지회설립일
2006년 7월

역대 지회장

- 제1대 배병섭 제2대 김도균
- 제3대 박승일 제4대 하태준



창사지회 Changsha

창사는 한국과 중국의 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인 곳으로서 한국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다. 창사시는 이곳을 거액의 시예산을 들여 영구 보존 기념관으로 탈바꿈시켰고, 한·중 우호 증진의 상징물이 됐다.

창사지회는 지역의 열악한 무역환경을 극복하고 2007년, 1인 지회로 설립해 현재 10명의 정회원이 활동하는 지회로 성장했다.

초대 이종태 지회장은 LG서광전자유한공사 창사 현지법인 출신으로, 설립부터 관여하여 법인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또한 현지 정부와의 유대와 공로를 인정받아 창사시 인민정부 명예시민이 됐고, 한국과 중국 호남 간 민간차원의 문화·경제교류 증진에 이바지했다. 지회 설립 이후에도 민간외교관의 역할은 물론 교민의 현지생활을 돌보는 데 매진했다.

이후 창사지회는 2015년 창사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복원사업에 이바지했고, 매년 정기적인 사회봉사활동과 함께 한국문화 전파에 앞장섰다. 그리고 현지 정부 인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여 나갔다.

창사 지역에는 KOTRA 무역관이 없다. 이에 창사지회는 '무한 KOTRA 지사'와 협력해 한·호남 간 무역투자 경제협력 증진은 물론 관광·문화 인적교류 확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지회는 모국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해 현지 경영자총회에 가입할 계획이며, 지방 자치단체와의 다양한 협업으로 모국상품 홍보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련지회 Dalian

대련은 랴오닝 성의 도시로 랴오둥 반도 끝에 자리잡은 부동항이다. 역사적으로 랴오둥 반도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하얼빈으로 연결되는 남만주 철도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현재 608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조선족 동포는 7만여 명, 한국 교민은 7,000여 명 정도이다.

대련지회는 2005년 11월 16일 정회원 11명이 모여 출범했으며, 현재 90여 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회는 매년 신년 하례식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성장해왔다. 특히 현지 관련 기관과의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해 현지 한인들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지회 회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종별 분과를 나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KOTRA 대련 관계자 초청 간담회 및 시장동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석해 공동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한편, 차세대 인력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밖에도 대련지회 전체 회원 워크숍, 봉사활동 및 장학사업을 펼쳐 지회의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05년 11월 16일

역대 지회장

- | | |
|---------|---------|
| 제1대 김광일 | 제2대 엄광철 |
| 제3대 김강 | 제4대 이경원 |
| 제5대 오대철 | 제6대 석문수 |
| 제7대 전일 | |

지회설립일
2006년 7월 15일

역대 지회장

- | | |
|---------|---------|
| 제1대 김택용 | 제2대 한연옥 |
| 제3대 김해동 | |

단둥지회 Dandong

단둥은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변경 도시로서 랴오닝성 랴오둥 반도의 동남부에 자리하고 있고,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신의주와 인접해있다. 국가적 우대 정책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단둥신도시·신항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둥지회는 초대 김택용 지회장이 중심이 되어 2006년 7월 15일 설립됐다. 김택용 지회장은 단둥의 조선족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조선족 경제문화교류협회 회장 출신으로서, 단독으로 지회를 설립해 지역사회에 월드옥타를 알리는 한편, 현지 교민들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초창기 지회 발전을 이끌었다. 이후 한연옥 지회장을 거쳐 현재는 김해동 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지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순지회 Fushun

무순은 한나라 시대에 이미 원시적 취락이 형성됐으며, 한민족의 동방 진출의 거점이 됐다. 이후 명나라 시대에 이르러 상업 도시로 발전했다. 20세기에 이르러 푸순 석탄광의 채굴 및

지회설립일
2011년 10월 22일

역대 지회장

- | | |
|---------|---------|
| 제1대 박성태 | 제2대 이영준 |
| 제3대 최철영 | 제4대 김성용 |



확장, 신(新)시가지 건설로 근대도시로 발전했다. 현재 푸순 탄전은 중국 최대 탄전의 하나가 됐으며, 공업원료탄 및 철도용탄을 공급하고 있다. 기계·전력·시멘트공업도 활발하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광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무순지회는 초대 박성태 지회장을 필두로 2011년 10월 22일 설립됐으며,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월드옥타의 위상 제고에 매진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광저우지회 Guangzhou

광저우는 북경과 상해에 이은 중국 제3의 대도시이다. 광둥성은 가전·통신기기·완구·시계·신발 등 220여 개의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세계의 제조공장’이라고 불리고 있다.

광저우지회는 2005년 12월 월드옥타 사무국의 지원 아래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초대 강일식 지회장을 포함 10여 명의 정회원으로 출범했다. 이후 모국과의 무역 활성화 노력과 타 지회와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그리고 설립 초기부터 세계화의 조류와 함께 하면서 모국과의 무역 활성화 및 세계 각 지역에 있는 지회들과의 교류를 통한 상호협조와 발전을 도모했다.

이에 따라 광저우지회는 경제 관련 유관 기관장들을 초청해 경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사업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신노동법 등 회원들에게 실효성 높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매년 4월과 10월에 열리는 ‘중국 대외수출교역회’를 적극 활용해 월드옥타 지회의 상호방문, 해외 전시회 참여 등 회원 및 지회 간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광저우지회는 현재 70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타 지회 및 회원들의 전시회 초청, 비즈



2005년 12월



- 제1대 강일식 제2대 송재준
- 제3대 이경호 제4대 김철룡
- 제5대 안금태 제6대 이용철
- 제7대 이민재



2006년 7월



- 제1대 김병건 제2대 박성공
- 제3대 임홍덕 제4대 임동
- 제5대 임충호 제6대 김학봉



니스 관련 지원과 합작사업 등을 확대하는 한편, ‘Business OKTA’를 목표로 월드옥타의 네트워크와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지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하얼빈지회 Harbin

하얼빈은 중국의 최북단에 자리한 대도시로서 동북아 유러시아 중심지이자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얼음 축제로 유명하며 특히 안중근 의사의 혼과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유서 깊은 도시이다. 하얼빈지회는 2006년 7월 월드옥타 88번째, 중국에서는 11번째 지회로 설립됐다. 창립 초기 한국 국적의 경제인 20여 명과 중국 국적의 조선족 경제인 20여 명으로 조직된 지회는, 모국의 경제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동포사회를 하나로 묶는 데 일조했다.

하얼빈지회는 14만 명의 동포를 등에 업고 시 당국과 흑룡강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지회로서, 제6대 김학봉 지회장의 취임 당시 해당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월드옥타의 중국 내 위상을 높였다.

이후 흑룡강성·한국 경제무역설명회, 중·러 무역박람회 한국관 운영, 하얼빈·한국 벤처기업 상담회 등을 주최하며 각급 정부와 경제무역 교류사업을 펼쳐왔다. 이 밖에도 하얼빈시 조선 민족 노래자랑, 전국 흑룡강 조선족 기업인 축구·배구 경기 등 동포사회 지원사업에도 적극 참여했고, 특히 2018년에는 하얼빈시에 유일한 한민족축구팀인 ‘아리랑축구팀’ 창단을 주도했다.

하얼빈지회는 그간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모국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위해 시장개척요원으로 서 가교역할을 해왔으며, 2021년 1월 하얼빈시 무역촉진회(ccpit)와 양자경제무역교류 협약을



체결, 하얼빈시와 협력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흑룡강성 정부, 하얼빈시와 함께 경제무역 설명회, 한국벤처기업 투자IR, 하얼빈 한중산업단지 조성, 하얼빈 한국주간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인 경제인과 조선족 경제인의 구심점이 되어 공동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함께 발전하는 동포사회 실현에 앞장서는 한편 중국 주류사회와 융합하고 협력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후룬베이얼지회 Hulunbuir

후룬베이얼은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에 자리하고 있다. 목재 산지로 유명하며 옥수수·잡곡 등의 농업과 석탄산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공업은 농기계 제조와 축산물 가공업이 발달했다.

후룬베이얼지회는 2016년 10월 1일 창립회원 22명을 포함 내외빈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유대진 지회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중국 연길·길림·장춘·통화 지회의 설립에 공헌했으며, 후룬베이얼지회 설립 초기부터 지회 활성화에 위해 헌신했다.

후룬베이얼은 2015년 첫 한국인 이주가 시작된 지역으로서 초기 지회 활동은 후룬베이얼 정부와 지역사회에 월드옥타를 알리고, 한국과의 무역과 문화교류 증진에 주력했다.

후룬베이얼 지역에는 조선족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어가 통용되지 못해 긴밀한 교류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지회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한·중 무역 교류를 지회업무의 우선 순위로 두고 매진했다.

매년 두 차례의 총회를 통해 신규회원 모집과 한국문화 알리기에 적극 나섰고, 특히 기존 ‘중·러·몽 국제 박람회’에 한국상품을 진출시켜 ‘중·러·몽·한 국제 박람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회설립일

2016년 10월 1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유대진 제2대 김광수



지회설립일

2014년 9월 19일



역대 지회장

제1대 김현철 제2대 정문화

지역사회의 불우이웃돕기, 차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모국문화 알리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후룬베이얼 무역촉진위원회와 정기 교류회, 소수민족 간담회 등을 통해 월드옥타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길림지회 Jilin

길림은 중국 지린성 중부에 있는 화학공업도시로서 주변의 구릉지대와 석기 시대부터 고구려·요·금 시대에 걸친 고분·유적이 산재해있다. 평만밭의 풍부한 전력공급으로 화학비료·플라스틱·염료·약품 등 화학산업과 농축산물을 이용한 제지·펄프·피혁·목화 사업도 활발하다.

길림지회는 2014년 설립됐으며 차세대 포함 40여 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류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발전을 이어왔으며, 특히 차세대무역스쿨에 적극 참여하는 등 네트워크 형성에 튼튼한 기반을 다져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본부의 각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지회 활성화에 매진했으며, 네트워크 형성에 튼튼한 기반을 쌓았다.

향후 지회는 회원들의 사업발전을 지원하고, 사업아이템 확보를 통해 차세대들의 창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등 지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지회설립일

2008년 2월



역대 지회장

제1대 전상혁 제2대 김방열 제3대 김홍태

남경지회 Nanjing

남경은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자리했던 곳으로 1927년 중화민국 수도가 되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북경으로 수도가 이전됐다.

남경지회는 2008년 2월 창립회원 10명을 포함, 남경시의 정계·교육계·문화계의 유력인사 50여 명을 초빙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초대 전상혁 지회장을 선출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재중 동포기업인들과 재중 한국인들의 세계를 향한 경제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설립 초기 남경 지역에는 동포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없어 현지 동포들은 한결같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2세들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지회는 2009년 3월부터 한글학교 지원사업에 매진, 한글교육과 한국문화 전파를 중점사업으로 정하여 실천에 옮겼으며, '조선족 유치원'도 개설해 운영하여 2010년 1학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후 지회는 월드옥타 본부 행사는 물론 매년 차세대무역스쿨에 참여해 우수인재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7년 대륙별 지회장회의를 개최해 지회 간 회원 교류와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했고, 매년 총회를 통해 월드옥타를 알리는 데 노력해왔다.

또한 각종 분과 및 소모임을 통해 회원 간 유대를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사회봉사활동과 한국문화 전파에도 앞장서고 있다.

향후 지회는 모국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마케터활동을 활성화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와의 다양한 협업으로 모국상품을 알리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도지회 Qingdao

청도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중국 내에서 최대 상공업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다. 한·중 수교 이전부터 한국기업들이 진출을 시도했으며, 현재 다수의 한국기업이 진출해있다.

청도지회는 2006년 4월 '화합, 교류, 협력, 발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설립해 지회의 양적인 발전과 질적인 향상을 지향하며 우수한 한민족 경제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통상별 네트워크 활성화와 차세대무역인 양성, 회원사의 공동발전을 주요 사업목표로 삼아 활동하여 한민족의 대통합을 추구하는 무역협회로 성장했다.



- 제1-2대 남용해 제3대 박광수 제4대 박광석 제5대 김혁 제6대 최림 제7대 장성혁 제8대 김금란



특히 지회에 적합한 정관과 회장선거 관리제도를 갖춘 건전한 단체로 발전했고, 발해만 지역 통합무역스쿨과 화북 지역 차세대 글로벌 통합무역스쿨 등을 개최해 세 차례에 걸쳐 우수 지회로 선정됐다.

현재 청도지회는 지역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봉사과 헌신으로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협회로 부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삼하지회 Sanhe

삼하는 지리적으로 북경과 천진 사이 동연교개발구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 지역을 말한다. 물류·제조업·건설업 등이 주요산업이며, 이 밖에도 부동산업·음식점업 등 다양한 업종들이 부상하고 있어 새로운 경제영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삼하지회는 월드옥타 발전에 기여하고 각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영토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016년 3월 14일, 초대 김정순 지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32명의 발기인의 주도로 설립됐다. 이후 지회는 지역사회의 한인 경제권을 넓히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특히 한·중 FTA의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수많은 한인사회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제1대 김정순 제2대 금동일 제3대 윤인철



또한 청년 세대의 창업을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등 한인사회 및 중국 내 한중무역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상해지회 Shanghai

상해는 경제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로서, 상해와의 교역량은 한·중 교역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상해지회는 2005년 10월 20일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한국학교 등의 설립자인 이평세 회장과 1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출범했다. 지회는 상해 현지를 방문하는 유관기관에 현지 무역정보 및 시장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중 간 무역 정책에 대한 건의와 자문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해 차세대무역인 양성에 주력하면서, 회원사들의 사업역량 제고를 위해 상해 주재 한국 총영사를 초청, 회원사들과의 특별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회는 2009년 12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제1회 월드옥타 상해 상품전시상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전기·전자, IT, 농수산식품 등 39개 분야의 한인기업과 80여 명의 중국 바이어가 참여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중국활성화대회'를 주관해 중국 내 지회 간 교류 및 지역경제인과의 포괄적 네트워크 결성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2019년 해외지사화 최우수 지회로 선정된 상해지회는 월드옥타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옥타몰(OKTAMALL.com)'을 대상으로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상해지회는 한국·중국 국적의 회원들이 혼연일체돼 중국뿐 아니라 세계 한인단체들 가운데서도 국적에 상관없이 단결하는 모범적인 한민족 공동체로 손꼽히고 있다.



지회설립일
2005년 10월 20일

역대 지회장

제1-2대 이평세	제3대 이재승
제4대 이양근	제5대 이상섭
제6대 이성문	제7대 박상운
제8대 이학준	제9대 황광

지회설립일
2006년 7월

역대 지회장

제1대 길경갑	제2대 이성국
제3대 박해천	제4대 이경자
제5대 강학원	제6대 박해평

심양지회 Shenyang

심양은 중국 동북지구의 남부에 자리하고 있어 동북경제구와 발해만을 둘러싼 경제구의 중요 지역이며, 러시아와도 가까워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이다. 방대한 공업기반이 구축돼 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 비옥한 곡창지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심양지회는 중국의 동북 3성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 구축된 조선족기업가협회의회로 출발했다. 이후 월드옥타 본부의 참여 속에 2006년 7월 초대 표성룡 지회장의 발기로 심양지회 창립총회를 개최, 정식출범했다.

현재 13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심양지회는 심양 지역 한인회를 후원하면서, 매년 '심양한국주'에 참여하며 심양 지역 한국 상공인들과 돈독한 우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회는 국내외 경제교류, 공익사업, 조선족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한 활동 등을 통해 민족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심양시 조선족 사회의 저명 인사들을 단합시켜 '자원공유, 공동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특히 제6대 박해평 지회장은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와의 협력 속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의보'를 구축, 민족사회의 경제인들을 새로운 혁신적 모델로 단합시키고, 사회단체와 민족사회 발전을 촉진해 민족경제 발전의 신기원을 열어가고 있다.



심천지회 Shenzhen

심천은 중국 광둥성에 자리하고 있다. 중국 최초로 경제특구로 지정돼 공업이 발달했으며, 개혁개방 1번지이자 중국의 고속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심천지회는 2009년 9월 12일 창립회원 50여 명과 내외빈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월드옥타 본부 남기학 수석부회장을 초대 지회장으로 임명하고 정식출범했다.

이후 지회는 매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비롯해 월드옥타 본부 주최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한인 경제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이바지해왔다. 2011년부터는 차세대무역스쿨에 참여해 인재육성에 힘쓴 결과, 현재 정회원 80명과 차세대회원 300여 명이 활동하는 지회로 성장했다.

지회설립일
2009년 9월 12일

역대 지회장

제1-2대 남기학	제3대 황남철
제4대 이대홍	제5대 박성혁
제6대 신한국	



특히 지회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성장세에 힘입어 심천 조선족 기업인과 해외기업이 서로 소통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회원 간 상호교류와 친목 도모를 위해 골프, 배드민턴 등 스포츠동호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으며, 월드옥타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주말학교·노인협회 등 여러 단체를 대상으로 봉사 활동 및 기부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향후 지회는 모국 중소기업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KOTRA, 지역 한인상공회, 중국인 경제인단체 등과의 다양한 협업으로 모국산품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 간 상호 이익,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한인 경제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소주지회 Suzhou

소주는 장국 장쑤성 남동부 타이후호 동쪽에 있는 호반 도시이다. 춘추전국 시대 오나라의 수도였으며, 이후에도 주변 지역의 행정 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방직·기계·제강·시멘트 등 근대공업이 발달했고, 대운하·철도 등 편리한 수륙교통에 힘입어 전통적인 상업도 크게 발전했다.

소주지회는 2017년 4월 28일 설립된 이래 차세대를 포함,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회는 회원 가입의 내실화를 위해 직접 회원사를 방문해 인터뷰를 거쳐 정식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2019년 남경지회와의 차세대 교류회를 통해 지회 간 정보교류와 차세대 양성에 실효성을



높인 바 있고, 매년 차세대무역스쿨을 통해 우수한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지회는 중국 및 한국의 협력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KOTRA 상해무역관, 경기·충북·경남 등 모국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협의했고, 향후 테크노파크 및 대학과도 협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월드옥타 세계대회에서 미국·유럽 지회들과 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곤산 우리말 배우기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는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소주지회는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건설이라는 옥타의 정신을 계승하고,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 사회적 인품을 갖춘 능력 있는 경제인 회원 모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천진지회 Tianjin

천진은 한때 바닷물에 잠겼다가 다시 육지화해 도시화된 곳이다.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뤘고, 중국 내 대표적인 공업도시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다수의 조선족 동포기업과 한국기업이 진출해있으며, 천진 내 조선족은 전자산업과 물류업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천진지회는 초대 서정자 지회장의 발의로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2007년 10월 제12차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에서 천진지회 창립회기를 수여 받은 후, 이듬해인 2008년 2월 25일 공식출범했다.

서정자 지회장은 월드옥타 대회에서 수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2010년 모국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에 선정된 바 있는 지도자였다.

천진지회는 설립 초기이던 2009년부터 차세대무역스쿨을 통해 차세대 인재육성에 힘을 쏟아 현재까지 3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2012년에는 지역경제인대회를 개최해 한인 경제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현재 총 80여 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회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교민사회와 조선족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사회봉사활동과 한국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통화지회 Tonghua

통화시는 지린성 내에 있는 도시로, 철산과 탄전이 있어 청강단지가 형성돼 있다. 농업과 광산 용 기계 및 화학·제지·포도주 제조산업도 발달한 곳이다.

통화지회는 2015년 3월 20일 월드옥타 135번째 지회로 설립됐다. 초대 이청산 지회장은 통화 기업가협회에서 활동하며 현지 교민사회에서 명성을 얻었고, 모국 수출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지회의 첫 수장에 인준됐다.

설립 이후 통화지회는 한인경제의 발전과 모국 수출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 아래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에 매진하고, 현지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돕고 있다.



지회설립일
2015년 3월 20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이청산 제2대 이장군



지회설립일
2006년 4월



역대 지회장
제1대 이찬균 제2대 김승수
제3대 정재식 제4대 김석원

위해지회 Weihai

위해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 지구에 있는 무역항이자 경공업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삼성중공업 등 1,500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있다.

위해지회는 2006년 4월 섬유를 취급하는 문등구로복장유한공사 이찬균 사장을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하며 정식출범했다. 2010년 8월 취임한 제2대 김승수 지회장은 문등복격인염유한공사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현지사회에서 신망이 높아 교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특히 같은 해 11월 지회 설립 기념행사를 개최해 월드옥타 국제사무국과 청도·연태·북경지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교류를 가졌다.

2013년 3월 정재식 지회장이 취임하여 한·중 협력 및 교류 발전에 힘써 왔으며, 2018년 3월 김석원 지회장이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길지회 Yanji

연길은 중국과 북한을 가로지르는 두만강과 혜란강의 물줄기를 따라 중국 북방 지역에 넓게 퍼져있는 도시이다. 조선족이 국경을 넘어 제일 먼저 정착한 곳 중의 하나이며 연변지역에 조선족의 3분의 1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07년 4월 9일



역대 지회장
제1대 김봉운 제2-3대 유대진
제4-5대 허재룡 제6-7대 남용수
제8대 최한

연길지회는 2007년 4월 9일 설립돼 13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규모 있는 지회로 성장했다. 매년 정기총회·정기이사회·차세대무역스쿨·자선활동 등을 통해 연변 내 타 단체보다 비교 우위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열리는 두만강국제무역박람회에 후원단체로 참여해 연변을 알리는 데 이바지하며 연변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 되고 있다.

설립과 동시에 개최해 온 차세대무역스쿨을 통해 700여 명의 차세대무역인을 배출했으며, 각종 분과 및 소모임을 통해 유대를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향후 지회는 타 지회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연변상품들을 세계에 알리고 연변 지역에 세계 유수의 상품들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연태지회 Yantai

연태는 중국의 화동·화북·동북으로 이어지는 교통요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표적인 공업 도시로서 중공업·조선업·자동차산업 관련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다. 또한 아시아 최대 와인 도시로서 전국 생산량의 절반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프랑스를 제치고 중국이 세계 1위의 와인 생산 및 소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태지회는 2006년 9월 초대 최용덕 지회장이 중심이 되어 설립됐다. 이후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와 함께 지회 네트워크 강화, 지회 활성화를 위해 매진했고, 회원들의 종사 업종별 분과를 월드옥타 8개 분과 형태로 나눠 정기적으로 분과모임을 갖고 있다.

또한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세계한인경제인대회 등에 참여해 회원들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연태지회의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한글학교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교과서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봉사활동에도 힘써 월드옥타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06년 9월

역대 지회장
제1대 최용덕 제2대 신성만
제3대 허지환 제4대 김금화
제5대 김용

지회설립일
2006년 10월 4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차봉규 제2-3대 김대석
제3-4대 김형준 제5대 최송호
제6대 김춘학 제7대 정기화

이우지회 Yiwu

저장성 이우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매시장이라 할 만큼 일용잡화용품의 천국이라 불리는 도시로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전시회 방식으로 그 모습이 진화됐다.

이우지회는 2006년 10월 4일 월드옥타 95번째 지회로서 설립됐고, 시 정부의 지원 속에 월드 옥타의 위상을 높이며 발전을 거듭했다. 지회 확장을 위한 노력과 회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고,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해 인재 양성에 이바지했다.

일용잡화의 최대 수출기지인 이우는 점진적으로 수입 물량을 늘리고 있으며, 이우지회는 이를 적극 활용해 중국제품 소싱 지원 역할은 물론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우 지역의 특징점을 활용해 수출입의 교두보 역할과 무역 촉진의 장을 마련한 지회는, 절강성 내 전시회 및 설명회를 통해 한국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해 판매 지원에 나섰고, 사업적 기반 마련에도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12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이우지회는 코로나19 비상시기의 역경을 이겨내고, 한국제품 야시장 개설, 수입 제품 전람회, 대형 쇼핑몰 내 한국제품 입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0

일본



01 일본 • 치바, 후쿠오카, 히로시마, 나고야, 오사카, 도쿄

 지회설립일
2006년 9월

 역대 지회장
제1대 박경홍 제2대 허영수
제3대 김동림 제4대 조송천
제5대 이태권 제6대 주홍철
제7대 김정남

치바지회 Chiba

치바는 도쿄에서 동쪽으로 약 500Km의 해안선으로 이어진 반도이며, 내륙으로는 울창한 삼나무 숲과 비옥한 농토가 자리한 곳으로,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치바지회는 2006년 9월 초대 박경홍 지회장을 중심으로 중국 조선족 기업가들이 주도해 설립했다. 설립 초기 일본과 대중국 교역에 집중했던 지회는 치바현(縣)은 물론 도쿄 주변 경제권과 한인 경제인들의 상호 비즈니스와 친목활동에 기여하고, 회원사의 번영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재일조선족이라는 장점을 살려 일본·한국·중국 무대를 배경으로 국제무역·건축·부동산·식품업 등 각 분야 종사 업종을 토대로 힘을 모아 치바지회만의 저력을 만들어나갔다.

이후 지회는 비즈니스 교류회, 창업 교류회 등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고, 현지 재일조선족 경제인 양성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했다.

월드옥타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각국의 회원들과도 긴밀한 정보교환과 인적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지회는 현재 정회원 100명, 차세대 회원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회설립일
2003년 7월 25일

 역대 지회장
제1-2대 강민구 제3대 김종민
제4대 정기태 제5대 강창현
제6대 정윤희 제7대 김현태
제8대 정영진 제9대 장성배

후쿠오카지회 Fukuoka

후쿠오카는 규슈의 관문 후쿠오카현(縣) 북서부에 자리한 도시로, 하카타만에 면한 현청 소재지이자 규슈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추적 관리 도시이다.

후쿠오카지회는 2003년 7월 25일 창립회원 50명을 포함, 내외빈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식출범했다. 출범 후 회원들을 위해 규슈 지역 정보 및 회원 정보를 담은 뉴스레터 'OKTA 후쿠오카'를 월 2회 일본어로 발행하고 전 세계에서 영어로 발행했다. 또한 한국의 동서대학으로



부터 국제인턴사원을 추천받아 일본 연수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 유학생을 지원했다. 전남대학교로부터 '재일한국기업의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에 협조하고, 롯데호텔과 할인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후 지회는 신규회원 모집에 매진하는 한편, 행사 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일본 내 타 지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했다. 일본 내 6개 지회 가운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후쿠오카지회는 청년 회원과 뉴커머들이 중심이 돼 비즈니스 교류 및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표자대회 일정 전후로는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교류 희망이 많아져 다양한 지회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7대 김현태 지회장은 최우수지회상 표창을 수상했고, 제8대 정영진 지회장은 모국청년 일자리사업 1위를 차지했으며, 제9대 장성배 지회장은 처음으로 일본 차세대 통합무역스쿨을 개최해 수료생 100명을 배출하는 등 지회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음악회를 겸한 야외 서머캠프를 통해 동포사회에 월드옥타를 홍보하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회원의 피해 복구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후쿠오카지회는 회원사 간의 B2B 사업을 전개해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회 내에서 원스톱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총 40명의 정회원이 활동 중이며, 이 가운데 10명의 핵심 차세대회원이 인재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히로시마지회 Hiroshima

일본에서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히로시마는 조선·차량·기계공업 등의 공장이 진출해 중·경공업이 모두 발달했으며, 일본 의회에 의해 국제평화문화 도시로 명명됐다. 이곳에는 혁신적인

 지회설립일
2019년 9월 19일

 역대 지회장
제1대 유연경

기업들의 지사가 다수 진출해있고, 도소매업과 같은 3차 산업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히로시마는 비교적 뉴커머가 적은 도시로서, 재일동포와 더불어 뉴커머가 중심이 돼 초대 유연경 지회장의 주도로 2019년 9월 19일 설립됐으며, 재일교포 경제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진출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강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유통·판매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연경 지회장은 여러 교민단체와 한인회, 교민들이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판소리·민요 자선공연을 개최하며 동포사회와의 유대를 이어가고 있다.

나고야지회 Nagoya

나고야는 아이치현(縣)의 현청 소재지로서 일본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일본 중부 지역의 행정·산업·문화·교통의 중심지로서 연간 2,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나고야항은 요코하마·고베에 이은 국제무역항이다.

나고야지회는 2003년 10월 1일 창립회원 20명을 포함, 내외빈 9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기념식을 갖고 정식출범했다. 이후 지회는 2006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통해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에 이바지했고, 차세대무역스쿨을 통해 차세대 인재육성에도 힘써왔다. 특히 2008년에는 대륙별 지회장회의를 개최해 지회 간 회원 교류와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일본 전역의 월드옥타 지회 대표들이 최초로 모인 일본 지역 대표자회의를 나고야 지회 주도로 개최해 일본 회원들의 국제 경쟁력과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나고야지회는 매년 총회를 통해 현지 동포사회에 월드옥타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신규회원 모집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재일동포로 구성된 나고야지회로서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뉴커머인 제8대 이주희 지회장이 취임하여 앞으로 더 많은 뉴커머의 입회와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모국 중소기업의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현지 경영자총회에 가입할 예정이며, 현지 지방

 지회설립일
2003년 10월 1일

 역대 지회장

- | | |
|---------|---------|
| 제1대 김성용 | 제2대 박고영 |
| 제3대 윤담 | 제4대 이말용 |
| 제5대 황원규 | 제6대 조순래 |
| 제7대 김상도 | 제8대 이주희 |



자치단체 및 다수의 기업과 자매결연을 맺어 모국상품을 알리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사카지회 Osaka

오사카는 관서 지방의 중심 상업 도시로서 오사카성을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과 세계최초의 해상 국제공항인 칸사이공항이 있는 곳이다.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한국 외식사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반도체를 이용한 의료부품시장의 경쟁력도 높은 편이다. 오사카지회는 2003년 2월 17일 백용규 초대 지회장을 필두로 하여 출범했다. 동포들의 이주 역사가 깊은 오사카에는 기성단체가 많아 지회 설립과 초기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오사카에서 처음으로 제2대 고영기 지회장의 차세대무역스쿨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지회 활성화의 큰 보탬이 됐다. 지회는 무역스쿨을 통해 재일청년실업가들에게 민족과 조국을 접하는 계기와 더불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타 국가 동포와도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사카지회는 초창기부터 꾸준히 문화활동과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이어오며 발전하고 있으며, 사람중심 경제단체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제7대 박정훈 지회장은 재일동포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뉴커머의 입회를 이끌어 한층 더 발돋움하는 오사카지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0년 2월 기준 95명의 정회원이 활동 중이며, 올드 커머·뉴 커머를 중심으로 조선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회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뉴질랜드 멜버른 등지의 지회와 자매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민족 간의 교류를 통해 모국을 느낄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지회는 재일사업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의 이익 증진에 힘을 쏟고, 한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 | |
|---------|---------|
| 제1대 백용규 | 제2대 고영기 |
| 제3대 남용행 | 제4대 박충석 |
| 제5대 고용수 | 제6대 김철웅 |
| 제7대 박정훈 | |



- | | |
|-----------|----------|
| 제1-4대 김용태 | 제5대 정강웅 |
| 제6대 송윤관 | 제7대 김훈 |
| 제8대 조한철 | 제9대 진영섭 |
| 제10대 장영식 | 제11대 김효섭 |
| 제12대 이승민 | 제13대 노성희 |
| 제14대 조진만 | 제15대 권용수 |

도쿄지회 Tokyo

일본의 수도, 도쿄는 월드옥타 본부가 자리해 초창기 발전의 초석을 다진 곳이다. 도쿄지회는 1981년 4월 월드옥타의 설립과 시기를 같이 해 출범한 유서 깊은 지회이며, 같은 해 9월 월드옥타의 본부 역할을 수행했다.

월드옥타 제2대 명예회장을 지낸 초대 김용태 지회장의 퇴임 이후 잠시 활동이 주춤했으나, 1998년 정강웅 지회장이 부임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후 지회는 한인 경제인들의 경제 공동체 결성에 앞장서며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김용태 회장 재임기간 월드옥타의 본부 역할을 담당했다. 도쿄 주변의 젊은 사업가·무역인·대학교수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회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월례회의를 통해 경영 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회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해 체육·문화 활동, 매월 1회 회원사 방문, 연 1회 회원 여행과 골프모임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타 지회와의 교류 촉진을 위해 자매 지회 친선 방문, 도쿄 방문 초청 등의 행사를 시행하며, 재일한국상공회의소·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 등과의 상호방문 및 교류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영국·캐나다·호주 지회와 회원 자녀들의 유학 관련 정보제공 및 현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무역인 양성에도 힘을 쏟은 지회는 설립 이래 15회의 차세대무역스쿨을 개최해 1,25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매년 80명을 교육하고 있다.

향후 지회는 청년 재일동포 기업인을 월드옥타 활동에 유도해 개인 및 기업의 발전은 물론 모국과 현지사회에 공헌하는 재일동포 기업인으로 양성할 계획이며,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는 재일동포사회를 월드옥타를 중심으로 네트워킹해 통일된 코리안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